2021 ARKO 온라인 공청회

예술인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온라인 공청회

2021. 4. 16.(금) 14:00~17:00

서울 예술가의집 다목적홀

온라인 생중계 YouTube 한국어/영어 facebook 영어

목차

06 **인사말** 박종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07 홍태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현장소통소위원장)

08 **축 사** 김남국 (국회 법사위 의원)

〈사전 프로그램〉

10 **① 필리핀 전통 악기 '쿨린탕 Kulintang' 연주**
닉키 프랑스 (서울대학교 국악작곡과 재학생/ 필리핀 아시아전통음악협회 대표)

16 **② 단편영화 '파키(Paki)' 상영**
섹알 마문 (방글라데시 출신 영화감독/ 문화다양성위원회 위원)

19 **③ '신의 자비(Divine Mercy)' – 미군 용산 기지 관련 작품 소개**
올리버 그림 (독일 출신 미디어 아티스트/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학부 교수)

32 **〈발제〉 이주민 문화예술인 체류자격 제도와 개선 방안**
김철효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56 **〈사례공유〉 이주민예술인 사례 발표 ①**
엠마누엘 사누 (부르키나파소 출신 현대 무용가/ 무용단 쿨레칸 대표 및 안무가)

64 **〈사례공유〉 이주민예술인 사례 발표 ②**
일레인 베가 (미국 출신 배우, 미국 CAA 소속 예술가)

〈종합토론〉 외국인 예술가 비자 시스템의 제도 개선 방안 모색

73 소라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75 신민준 (현장소통소위원회 위원)

79 섹알 마문 (문체부 문화다양성위원회 위원)

81 이취경 (법무부 체류관리과 사무관)

83 현장 토론

2021 ARKO 온라인 공청회

예술인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온라인 공청회

행사개요

목 적	예술인비자문제(E6)에 대한 예술현장의 공감대 형성과 관심도 제고를 위한 공청회를 기획하여, 이주민예술인의 한국 내 안전한 문화예술 활동 장려를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
일 시	2021.4.16.(금) 오후 2시~5시
장 소	서울 예술가의집 다목적홀
방 식	온라인 공청회로 진행 – 채널 : 기관 유튜브(한국어/영어), 페이스북(영어) 라이브 송출
주 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 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현장소통소위원회
후 원	국회 법사위 김남국 의원실
협 찬	피노이 서울(Pinoy Seoul)

프로그램

1부	**〈사전 프로그램〉**	
14:00~14:04	① 필리핀 전통 악기 '쿨린탕 Kulintang' 연주 닉키 프랑스 (서울대학교 국악작곡과 재학생/ 필리핀 아시아전통음악협회 대표)	한국어 (영어 동시통역)
14:04~14:17	② 단편영화 '파키(Paki)' 상영 섹알 마문 (방글라데시 출신 영화감독/ 문화다양성위원회 위원)	
14:17~14:24	③ '신의 자비(Divine Mercy)'–미군 용산 기지 관련 작품 소개 올리버 그림 (독일 출신 미디어 아티스트/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학부 교수)	
14:24~14:30	〈휴식시간〉	
2부		
14:30~14:40	**〈개회〉** 사회 : 박경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행사 안내 인사말 : 박종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홍태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현장소통소위원장) 축 사 : 김남국 (국회 법사위 의원)	한국어 (영어 동시통역)
14:40~15:00	**〈발제〉 이주민 문화예술인 체류자격 제도와 개선 방안** 김철효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한국어 (영어 동시통역)
15:00~15:15	**〈사례공유〉 이주민예술인 사례 발표 ①** 엠마누엘 사누 (부르키나파소 출신 현대 무용가/ 무용단 쿨레칸 대표 및 안무가)	프랑스어 (한국어 순차통역 영어 동시통역)
15:15~15:30	**〈사례공유〉 이주민예술인 사례 발표 ②** 일레인 베가 (미국 출신 배우, 미국 CAA 소속 예술가)	영어 (한국어 동시통역)
15:30~15:40	〈휴식시간〉	
3부	**〈종합토론〉 외국인 예술가 비자 시스템의 제도 개선 방안 모색**	
15:40~16:40	사회 : 박경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김철효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소라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민준 (현장소통소위원회 위원) 섹알 마문 (문체부 문화다양성위원회 위원) 이취경 (법무부 체류관리과 사무관)	한국어 (영어 동시통역)
16:40~16:50	**〈질의응답〉**	한국어 (영어 동시통역)

* 동시통역 : 영어(전하얀/전민성), 프랑스어(사동렬) 진행
* 전체 프로그램 한국어 속기자막 제공

인사말

박종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박종관 위원장입니다.

국적과 인종, 언어를 초월하여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것은 바로 예술입니다.

국내에 체류하는 이주민의 수가 200만 명이 넘으며, 우리 사회의 주요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주민예술인을 위한 지원과 문화다양성에 대한 고민은 부족하였습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하여 이주민예술인도 동등하게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도 예술현장의 동반자로서, 문화예술생태계의 다양성 증진을 주요 가치로 삼고, 예술가들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창작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1년 문예진흥기금 공모부터는 예술활동증명이 된 외국인도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하였고, 기초예술의 다양성 증진을 위한 신규 사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하여 앞으로도 건강한 예술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작년부터 문화예술 현장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예술인들은 관객을 만날 날만 기약하며 경제적 어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술은 지속되고 있고, 예술의 본질적 가치를 발굴하고 사회에 확산하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다시 한 번 예술인비자문제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주관한 현장소통소위원회, 후원해주신 김남국 의원을 비롯하여 같이 자리해주신 법무부 관계자 및 예술인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

홍태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현장소통소위원장)

안녕하세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이자 현장소통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태림입니다. 이번 'ARKO 예술인비자문제 개선을 위한 온라인 공청회'에 참여하고 지지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민의 규모가 25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한국의 이주민 규모는 웬만한 광역시 인구보다 많은 셈입니다. 이주민의 규모가 꾸준히 증가해온 가운데 2006년부터는 지방선거의 경우 영주권을 획득하고 3년 이상 거주한 이주민에게 투표권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에는 최초로 이주민 국회의원이 배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주민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한 축임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이주민에 대한 한국 사회의 제도적, 문화적 차별은 여전합니다. 근래에 이주민들이 우리도 소득세, 종합소득세, 지방세, 주민세를 내는데 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못 받느냐고 반문한 것이 대표적인 예 중 하나일 것입니다. 즉 대한민국은 이주민의 인권과 권리에 대한 감수성이 여전히 높지 못한 것입니다.

이주민에 대한 제도적, 문화적 차별은 예술분야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 공청회의 주제인 이주민 예술가 비자 문제는 물론이고 공공 문화예술지원 영역에서도 이주민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행히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21년부터 이주민을 배제하는 사업 신청자격을 개선했습니다. 또한 여러 준비와 논의를 거친 끝에 예술현장의 동반자이자 예술현장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이주민 예술가들의 비자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이렇게 펼쳐내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이번 공청회가 단순히 이주민 예술가의 비자 문제 해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국가전략 차원에서 이주민들과 어떻게 함께 미래로 나아갈 것인지를 다시 치열하게 고민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예술계 내외에서 이주민 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을 국회의원)

안녕하세요, 다문화의 도시 안산단원을 국회의원 김남국입니다. 이주민 예술인의 안전한 예술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예술인 비자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공청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최근 한류의 확산으로 우리 문화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단순 경제활동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펼치려는 외국인들의 숫자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주민 예술인들은 활발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한국 예술의 다양성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이주민 예술인들은 고국과의 문화매개자로서 한국 예술의 세계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한국 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많은 이주민 예술인들은 미흡한 국내 체류자격 제도로 인하여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주민들이 예술 활동을 하기 위한 비자 중 문화예술 비자(D-1)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하는 순수 예술 활동에 국한되어 있어 예술 활동에 따른 금전적 보상이 보장되지 않고, 다른 체류자격을 가지고 입국한 외국인들은 신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예술흥행 비자(E-6)의 경우에는 임금체불, 열악한 노동조건 등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마찬가지로 존재하고, 특히 체류자격자의 2/3 이상이 유흥업소 등에 종사하고 있어 노동착취, 인신매매 등 그동안 끊임없이 인권 침해 문제가 지적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국제이주 관련 정책은 노동력, 인구 증대의 측면에서만 다루어져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맞이하여 이제는 우리도 국가 차원에서 문화다양성의 토대를 마련할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은 이주민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체류를 위한 비자 문제 개선입니다.

오늘 예술인 비자의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문체부와 법무부, 학계와 이주민 예술인 당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쉽게 마련되기 어려운 자리인 만큼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도 우리나라 대표 다문화 도시인 안산의 국회의원으로서 이주민 예술인들이 마음 놓고 창의적인 예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함께 힘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ARKO 온라인 공청회

예술인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온라인 공청회

1부

〈사전 프로그램〉

필리핀 전통 악기 '쿨린탕(Kulintang)' 연주
닉키 프랑스
(서울대학교 국악작곡과 재학생/ 필리핀 아시아전통음악협회 대표)

단편영화 '파키(Paki)' 상영
섹알 마문
(방글라데시 출신 영화감독/ 문화다양성위원회 위원)

'신의 자비(Divine Mercy)' – 미군 용산 기지 관련 작품 소개
올리버 그림
(독일 출신 미디어 아티스트/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학부 교수)

2021 ARKO 온라인 공청회 예술인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온라인 공청회

1부 〈사전 프로그램〉

필리핀 전통 악기 '쿨린탕(Kulintang)' 연주

닉키 프랑스 (서울대학교 국악작곡과 재학생/ 필리핀 아시아전통음악협회 대표)





예술인 비자에 대한 나의 개인적인 견해

예술 분야의 학생들은 여러분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예술은 많은 훈련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은 5살 때부터 예술가로서의 경력과 예술적 정체성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년간의 훈련 후에야 학문 분야에 입문하게 됩니다. 겉에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학문 분야에 들어가는 것은 저희에게 이미 일을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한국에서 예술 전공 유학생으로서 몇 배나 더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예술인 비자를 받기 위해 갖춰야 하는 필수조건중 하나는 저를 확실하게 고용하겠다는 의지를 갖춘 회사입니다. 하지만 이 조건은 일부 예술 전공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기 위해, 국악 작곡 전공을 하고 있는 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K-pop이나 일반 음악회사에 관련된 직업에 지원할 수 있는 예술인이 아닙니다. 저의 예술적 정체성이 어디에 적합한 지, 그리고 한국에서 제가 지원할 수 있는 단체나 회사들을 파악하는 데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술인 비자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그 과정을 더 쉽게 한다면 제가 입사하고자 하는 회사에 지원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 비자를 지원할 수 없는 회사나 단체도 있으니까요.

예술인 비자가 보장된 상태에서 제가 함께 하고자 하는 회사나 단체에 지원하게 되면 합격 할 기회가 더 많아지고, 장기적으로 저는 더 좋은 예술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 약력

Joenic France Juanite가 본명인 닉키 프랑스 현재 서울 대학교에서 국악작곡을 전공하고 있으며 있으면 졸업을 앞두고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국립 필리핀대학교에서 DCPMA– 아시아 음악을 전공하면서 전통 음악가로서의 경력을 시작하였습니다. 매년 서울대 음대에서 주회하는 '국경없는 콘서트'에서 작곡가이자 연주자로 활동 했으며, 필리핀 전통 악기인 kulingtan으로도 연주가 가능한 국악을 작곡하고 있습니다. 2019년 태국의 Princess Galyani Vadhana Institute of Music에서 열린 ASEAN Youth Ensembl 연례 국제 심포지엄에 필리핀대학교와 서울대학교를 대표하여 참석했으며 그녀의 작품 'ConFusion : Risk'는 이 자리에서 국제적인 인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2021년 6월 1일에 있을 졸업 공연을 준비 중이며, 국악과 필리핀 전통 음악의 요소를 결합한 음악 작곡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2. 대표적인 예술활동

- 2019~현재 Pinoy Artist in Korea – 사무총장
- 2018 서울대학교 국경없는 콘서트 "Encounter" – 작곡자
- 2017~현재 Masala Musical, Salad Company – 배우, 다악기 연주자
- 2017 서울대학교 국경없는 콘서트 "Let's Go Farming" – 작곡자
- 2015 Ricca Ricca Theatre Festival, 오키나와, 일본 – 다악기 연주자
- 2014 안동 국제 탈춤 축제 – 연출자, 연기자

- 2012 태국 Music and Dance Festival – 연기자, 대표
- 2011~2013 UP TUGMA (Tugtugang Musika Asyatika) – 대표, 연출 위원, 연기자.
  다양한 아시아 전통 음악 콘서트를 연출하는 비영리 단체.

3. 콘서트를 위한 작곡

Let's Go Farming 2017
Encounter 2018
Trial & Error 2018
Con–Fusion: War 2019
오늘만 2019
Con–Fusion: Risk 2019

이름 : Nicky Juanite
국가 : 필리핀
악기 : 쿨린탕
음역대 : A3 – C4 – Db4 – Eb4 – F4 – G 4 – A4 – C5
프로필 : 서울대학교 국악작곡 전공 학사 재학
2019. 'ASEAN Youth Ensemble, PGVIM' 작곡자 – 태국
2019. 'NZ Basement Theater' 작곡자 – 뉴질랜드
2018~현재. 재한 필리핀예술가협회, 사무총장 – 필리핀 대사관, 서울
2017~현재 'SNU Borderless Concert' 작곡자 – 서울대학교
2017~현재. '다문화 극단 샐러드' 작곡자 및 배우 - 서울
2015. 'Okinawa's Ricca Ricca Theatre Festival' 작곡자 및 다중 악기 연주자 – 일본
2014.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 공동연구자 및 은메달리스트 – 안동

'Sinulog A Bagu' is performed on Kulintang, a traditional musical instrument of the Philippines

Nicky France (Korean Traditional Music Composition Student, Seoul National University/Philippines Representative, Asian Traditional Music Association)

Personal Thoughts regarding the Artist Visa discussion:

Students from the Art field are one of the hardworking human-beings you will meet. We started building our career and our artistic identity from the age of 5, because art requires a lot of practices. After all the years of training, we then enter the Academic field. It may not seem but entering the Academic field is like a job for us already. The experience is way more doubled as a foreigner art major student in South Korea.

I am one of the art major students that were accepted wholeheartedly to one of the respected universities in South Korea. And now that I am about to graduate I only wish that getting an artist visa wouldn't be that much harder.

Part of the requirements with the Artist Visa is a sure company that accepted me already, but I believe that this doesn't apply to other art majors. To be more specific, I am a composition major in Gugak. I am not someone who will apply for a job that is related to institutes such as K-pop or Music Producing companies. I will need some kind of time to figure out where my Artistic identity suits and which applicable companies I could apply for here in South Korea. Making it easier to directly receive the Artist Visa would be much helpful for me when I apply for the company that I want to be part of, if for example that company won't be able to sponsor my visa.

Having a sure Artist Visa upon my application for the job I wish to apply will give me higher chances to be accepted to that specific company I wish to join and be exposed, and help me become a better artist.

1. BIO

Joenic France Juanite, 'Nicky' is currently on her final semester majoring in Composition in Korean Music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er career as a traditional musician began and took off on the year of 2009 when she took the DCPMA-Asian Music in the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She is an active composer and performer in the annual 'Borderless Concert' of SNU College of music. She've purposely written her pieces for the Gugak instruments with Philippine traditional instrument, the kulintang.
On 2019, her piece 'ConFusion: Risk' was internationally recognized at the annual International Symposium of ASEAN Youth Ensemble at Princess Galyani Vadhana Institute of Music in Thailand. She represented both the Philippines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She is currently on her preparation for her upcoming graduation concert on June 1, 2021. She will put together her music compositions that combine the elements of Gugak and Philippine Traditional Music.

2. Some of her Notable Works & Experiences

- 2019~Present, Pinoy Artist in Korea, Secretary General
- 2018 SNU Borderless Concert "Encounter" - Composer
- 2017~Present, Masala Musical, Salad Company- actress, multi-instrumentalist
- 2017 SNU Borderless Concert "Let's Go Farming" - Composer
- 2015 Ricca Ricca Theatre Festival, Okinawa Japan - multi-instrumentalist
- 2014 Andong International Mask Dance Festival - collaborator, producer, actress, performer.
- 2012 Thailand Music and Dance Festival - performer, representative
- 2011-2013 UP TUGMA (Tugtugang Musika Asyatika) - President, Production Committee, Performer. A nonprofit organization that produces various concerts in Asian Traditional Music field.

3. Written Pieces for Concerts

Let's Go Farming 2017
Encounter 2018
Trial & Error 2018
Con-Fusion: War 2019
오늘만 2019
Con-Fusion: Risk 2019

이름: Nicky Juanite
국가: 필리핀
악기: 쿨린탕
음역대: A3 - C4 - Db4 - Eb4 - F4 - G 4 - A4 - C5
프로필: 서울대학교 국악작곡 전공 학사 재학
2019. 'ASEAN Youth Ensemble, PGVIM.' 작곡자 - 태국
2019. 'NZ Basement Theater.' 작곡자 - 뉴질랜드
2018~현재. 필리핀한국예술협회, 사무총장 - 필리핀 대사관, 서울
2017~현재 'SNU Borderless Concert.' 작곡자 - 서울대학교
2017~현재. 'Salad Multi-Cultural Theater.' 작곡자 및 배우 - 서울
2015. 'Okinawa's Ricca Ricca Theatre Festival.' 작곡자 및 다중 악기 연주자 - 일본
2014.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 공동연구자 및 은메달리스트 - 안동

1부 〈사전 프로그램〉

단편영화 '파키(Paki)' 상영

섹알 마문 (방글라데시 출신 영화감독/ 문화다양성위원회 위원)






There's a crackdown going on.. Say something!
Okay...




Paki, you're Korean is really good.

〈약력〉

섹알 마문

섹알 마문 감독님은 방글라데시 테즈가온 대학에서 경영학을 수학했고, 1997년 이주노동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일하던 중, 법무부 출입국의 강제추방에 반대하는 이주노동자의 농성에 참여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주노동자 인권운동가와 노동운동가로 변신했다. 마문 감독은 2005년 설립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설립 멤버이고, 현재에도 수석 부위원장 직을 맡아 동료 이주노동자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 마문 감독은 현재 이주민 문화예술공간 프리포트 운영자로 일하고 있으며 2021년 2월 문체부 문화다양성위원회 1기 위원으로 임명됐다. 그는 2013년 단편 극영화 '파키'를 감독하면서 본격적인 영화감독으로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후 단편 다큐멘터리 영화 '굿바이', '하루 또 하루', '밀리언 리마'를, 단편 극영화 '피난'을 감독했으며, 2017년부터는 장편 다큐멘터리 '꿈, 떠나다', '비닐하우스 집이 아니다'를 감독해, 디아스포라 영화제, 서울인권영화제, ebs 국제 다큐영화제, 광주 국제영화제, 다카영화제, DMZ 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 등에서 상영하여 큰 주목을 받았다. 단편 극영화 '파키'는 가구공단 노동자로 함께 배우의 꿈을 쫓아가며 우정을 쌓던 미등록 이주노동자 파키와 한국인 동료 민재가 영화 오디션에 합격하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마문 감독은 16년 동안 이주노동을 하면서 직접 경험하고 느꼈던 것들을 영화를 통해 말하고 싶었다고 한다.

'신의 자비(Divine Mercy)'

– 미군 용산 기지 관련 작품 소개 –

올리버 그림 (독일 출신 미디어 아티스트/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학부 교수)

'Divine Mercy'

– A work related to the US Army Yongsan Garrison –

Oliver Griem (German Media Artist/Associate Professor, Visual Communication Design, Hongik University)

My Name is Oliver Griem, originally I'm from Germany and moved to Seoul in 1995. Since 2000 I am teaching video & interactive media at Hongik University, Seoul. My work includes single-and multichannel videos, interactive art-works and immersive installations that utilize space, sound, video and light. Also I used to realize electronic scenographies for dance & theatre pieces

You can find an archive of my work at http://www.fischkalb.com

In many of my works, the city Seoul, Korea and the relations between North- and South-Korea play a role as source for inspiration or they are the subject of study.

I am also a member of the artist group 'gate22'(gate22.org), which does research and realizes art works connected to the US-army base in Seoul/Yongsan. The influence of the army base on the development of its neighborhoods and the South Korean society are themes for the research.
In this context I realized some works, that regard to the Yongsan Garrison. And I would like to introduce two of these works.

'Once upon a time in California' is a diorama from 2015.
A free imagination of what may have happened behind the high walls of the Yongsan garrison at some day in the past. This imagination is based on the fact,

that lots of oil is found in groundwater probes near the army base and on a case of dumping agent orange by US-soldiers in Korea in the late 1970ties.



From 2009 to 2019, I was living just a few hundred meters away from the Yongsan garrison. It covers about 2.6 square kilometers and is located near the Han river right in the middle of Seoul. The helicopters going back and forth between the Yongsan garrison and other US-army bases in Korea were a daily routine. Every time tensions got complicated between North- and South-Korea, the fear that war could break out and a first attack would destroy our neighborhood also was a part of everyday life.

While researching for a new art work, I came across an announcement in the Yongsan garrison Facebook-feed, that advertised the screening of a documentary in a chapel on the army base. The documentary deals with a painting that originates from the visions of catholic saint Maria Faustina Kowalska. The painting shows Jesus with one hand in the air and the other hand pointed at his heart from which red and white light rays are emerging.

The image for the Facebook announcement however didn't show the original painting,

but showed an US soldier in combat gear on the ground looking at a Chinook transport helicopter that hovers in front of an orange sunset. It gives the impression, that for the US-soldier the arrival of the helicopter brings the divine mercy, that gets him out of enemy lines back to peaceful home. This advertisement gave a main inspiration for creating my work 'Divine Mercy'.



My work 'Divine Mercy' shows an imagined part of the Yongsan garrison in a frozen moment of time on the night of Halloween.











Some soldiers pack things for moving. Some soldiers are enjoying a bbq meal, others are sitting in front of their computers dreaming, some making shady deals or having a cigarette break. Children in Halloween costumes are running around for trick & treat, some of them getting caught in restricted areas, where they shouldn't be.

In a corner you see a part of the Korean neighborhood beside the base, where next to the fences somebody used abandoned land to grow vegetables, a Korean right wing protester build his tent on the street waving a Korean & American flag and has a sign that says "This is an order of the people - armed forces, arise!".

Above all this, a chinook helicopter hovers in the air. A guy in Halloween costume with gas-mask leaning out the side-door. Most of the soldiers on the ground are astonished and staring at the hovering helicopter, one of them is opening his arms in expectation of a holy miracle.



I realized the work 'Divine Mercy' in several different variations, one version is a diorama in 1:35 scale. I made a 3 channel and single channel video based on the diorama and an interactive Virtual Reality – experience for VR-Headset.

In 'Divine Mercy – VR' the spectator gets scaled down and can experience the scenery from inside of the diorama. The spectator can freely walk around, shoot with a bb gun or listen to the thoughts of the people that got trapped in this dimensional and temporal rift.

This is an excerpt of the gameplay for the VR-Version of Divine Mercy.

(video excerpt)



‘신의 자비(Divine Mercy)’

– 미군 용산 기지 관련 작품 소개 –

올리버 그림 (독일 출신 미디어 아티스트/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학부 교수)

저는 올리버 그림입니다. 독일 출신으로 1995년에 서울로 왔으며, 2000년부터 홍익 대학교에서 영상 & 인터랙티브 미디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 작품에는 공간, 소리, 영상과 빛을 활용하는 단일 및 다중 채널 영상물, 상호작용형 예술작품 및 몰입형 설치물 등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용 및 연극 작품의 전자 배경도 창작하였습니다.

http://www.fischkalb.com에서 제 전 작품을 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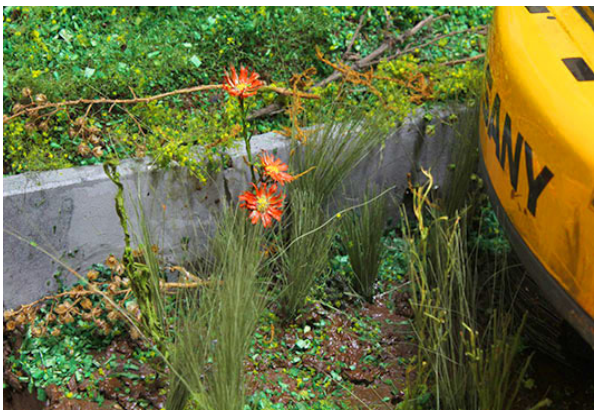
서울, 대한민국, 남북한 관계는 제 작품 중 큰 부분을 차지하고 영감의 원천이 되거나 연구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또한 저는 서울 용산에 있는 미군 기지와 연계된 작품을 연구하고 구현하는 아티스트 그룹 ‘gate22’ (gate22.org)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군기지가 주변 이웃과 한국 사회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연구 주제입니다.

이런 배경하에 저는 용산 기지에 관련된 몇 가지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중 두 작품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옛날 옛적 캘리포니아에서는’이라는 작품은 2015년작 디오라마입니다.
과거 언젠가 용산 군기지의 높은 장벽 뒤에서 일어났을 수도 있는 일에 대한 자유로운 상상입니다. 이 상상은 미군 기지 근처의 지하수 검체에서 기름이 다량 발견되는 것과 1970년대 후반, 주한 미군 병사들이 한국 땅에 에이전트 오렌지(고엽제)를 폐기한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2009 년부터 2019 년까지 저는 용산 기지와 불과 몇 백 미터 거리에 위치한 집에 살았습니다. 면적은 약 2.6 평방킬로미터에 한강 근처이며 서울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용산 기지와 국내의 다른 미군 기지 사이를 오가는 헬리콥터는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남북한 관계에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동네가 첫 공격의 대상이 되어 파괴될 것이라는 두려움 또한 일상생활의 일부였습니다.

새로운 작품을 연구하던 중 용산 기지 페이스북 글 중 기지 내 예배당에서 다큐멘터리를 상영한다는 광고 공지를 발견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가톨릭 성녀인 마리아 파우스티나 코발스카의 환영에서 비롯된 그림을 다루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그림에는 한 손을 공중에 뻗고, 다른 한 손은 빨간색과 흰색 광선이 나오는 자신의 심장을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하지만 페이스북 광고 공지의 이미지는 이 그림의 원본을 보여주지 않고, 전투 장비를 착용한 미국 군사가 지상에서 주황색 일몰을 배경으로 치누크 수송 헬리콥터를 올려다보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 군인에게 헬리콥터는 그를 적진에서 빼어내 평화로운 고향으로 데려가 주는 신성한 자비 같은 인상을 줍니다. 이 광고는 제 작품 '신의 자비'를 만드는 데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신의 자비'는 할로윈 날 밤 시간이 멈춘 한순간에 포착된 용산 기지의 모습을 상상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병사들은 이주할 물건들을 챙기고 있습니다. 또 어떤 병사들은 바비큐 식사를 즐기고 있고, 컴퓨터 앞에 꿈을 가득 품고 앉아 있기도 하고, 뭔가 수상쩍은 거래를 하기도 하며, 담배를 피우며 쉬고 있는 이도 있습니다. 할로윈 의상을 입은 아이들은 사탕을 얻기 위해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들어가서는 안 되는 금지 구역에서 갔다가 들키는 아이들도 있답니다.

한구석에서는 기지 옆에 있는 동네의 일부를 볼 수 있습니다. 울타리 옆 버려진 땅에는 누군가 텃밭을 일구어 야채가 자라고 있으며, 우익 시위자들이 길가에 텐트를 치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플래카드를 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장면 위로 치누크 헬리콥터 한 대가 공중에 떠 있습니다. 할로윈 의상을 입고 방독면을 쓴 남자가 헬리콥터의 옆문 밖으로 몸을 내밀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대부분의 병사들은 깜짝 놀라 헬리콥터를 올려보고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이 거룩한 기적을 기대하는 듯한 모습으로 팔을 벌리고 서 있습니다.



'신의 자비'라는 작품은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1:35 스케일의 디오라마인데, 이 디오라마를 기반으로 한 3 채널 및 단일 채널 영상, 그리고VR 헤드셋을 착용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가상 현실 경험도 만들었습니다.

‘신의 자비–VR버전’에서는 관중이 축소되어 디오라마 안에 들어가 풍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관중은 자유롭게 걸어 다니거나 BB 총을 쏘거나 이 시간과 공간의 균열에 갇힌 사람들의 생각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신의 자비–VR 버전의 한 장면입니다.

(비디오 영상의 한 장면)



〈약력〉

올리버 그림

미디어 아티스트, 공공예술가.
독일 쾰른 미디어아트 예술대학교 (KHM) 재학 中 한국에 대한 다큐멘터리 ‘보통사람들’을 제작하면서 한국 문화와 사회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됐다. 1995년부터 한국에 살면서 싱글/멀티채널영상설치, 인터렉티브설치, 360도 영상, 공연을 위한 영상작업 하고 있다. 특히 남북한 관계에서 작품의 영감을 받아 연구하여 작품을 제작하고 있다.

2021 ARKO 온라인 공청회

예술인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온라인 공청회

2부

〈발제〉
이주민 문화예술인 체류자격 제도와 개선 방안
김철효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사례공유〉
이주민예술인 사례 발표 ①
엠마누엘 사누
(부르키나파소 출신 현대 무용가/ 무용단 쿨레칸 대표 및 안무가)

〈사례공유〉
이주민예술인 사례 발표 ②
일레인 베가 (미국 출신 배우, 미국 CAA 소속 예술가)

2부 〈발제〉

이주민 문화예술인 체류자격 제도와 개선 방안

김철효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1. 이주민 인구 현황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10월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207.7만 명, 귀화 또는 국적회복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25.5만 명에 달한다. 비국민과 국민이지만 해외에서 이주해 온 사람을 포함하는 '이주민' 인구가 총 인구의 4.5%에 해당한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20. 10.』, pp.13–9). '이주민'의 자녀 등을 포함하는 '이주배경인구'까지 포함하면 총 인구의 5%에 달한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인구 다양성은 통계 숫자만으로도 확인된다.

2. 이주민 문화예술인 정책의 한계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이주민'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국가에 와서 출신 지역의 문화를 전파하기도 하고, 거주 지역의 문화를 습득하기도 하고, 문화접변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다문화사회'를 일찍부터 경험한 서구 사회의 사례를 보면 이주의 증가로 인한 사회변화는 가히 전 사회적이라 할 수 있다. 경제적·사회적 관계의 구조적인 변화는 말할 것도 없고, 음식, 문화예술 등 일상에서의 다문화주의(everyday multiculturalism)도 사회변화의 중요한 요소이다.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는 이주민의 문화예술 활동과 그것이 사회에 기여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덜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국가의 정책이 국제이주의 문제를 생산력 또는 인구 증대의 측면만 강조할 뿐 그것과 동시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화예술 분야의 변화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문화예술정책과 이주민정책 어디에서도 이주민 문화예술인의 사회적 기여를 인정하거나 그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이 부재하다는 사실은 '문화'가 없는 다문화정책이라는 현실의 단적인 사례이다. 이로 인해 한국 사회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자 하는 이주민 문화예술인들은 예술 활동을 위한 지원을 고사하고, 모든 활동의 출발점이 될 안정적인 '체류' 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체류허가' 제도에 따르면 이주민 문화예술인이 그들의 활동을 인정받고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은 해외에서 '문화예술(D–1)' 또는 '예술흥행(E–6)' 체류자격으로 사증을 받고 국내에 입국하는 것이다. 또 다른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위의 두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주민 문화예술인이 국내에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제도적 장치는 '체류자격'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 따라 이주민이 '예술(D–1)' 체류자격을

갖게 될 경우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없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생긴다. 또 '예술흥행(E-6)' 체류자격의 경우 수익활동이 허가되지만 방송·연예, 스포츠, 호텔 공연 등의 분야에만 한정되어 있어 순수예술 창작자는 접근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예술흥행(E-6)' 체류자격 외국인에 대한 임금체불, 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는 문제점도 있다. 한편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의 경우 일반적인 전문 직종에 종사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특정한 조건을 갖출 경우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주로 과학기술, 식품, 제조업 등의 직종에만 허용되고 순수예술 분야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결국 한국의 이민정책은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여 한국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지만, 예술창작 활동가의 경우 '인재'로 간주하지도 않는 한계를 보인다. 특히 유학생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졸업 후 예술창작 활동을 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인재의 경우, 현행 체류자격 제도에 따르면 한국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정부의 현행 제도가 순수 예술창작인은 경제적 소득활동이 필요 없는 사람으로 간주함으로써 이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제활동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규제 중심의 이민정책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인재유치'의 주요 전략으로 이민정책을 사고하는 것 자체가 상충하는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현행 체류자격이 이주민 문화예술인의 국내 활동과 관련하여 어떤 규정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이들의 활동을 가로 막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3. '문화 · 예술(D-1)' 체류자격

우선 '문화예술(D-1)' 체류자격의 경우를 살펴본다. 법무부가 발간하는 『사증발급 안내매뉴얼(체류자격별 대상 첨부서류 등), 2020. 6.』(pp.53-4)에 따르면 이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래와 같은 사람으로 한정된다.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국 전에 사증발급을 통한 체류허가를 받아야 한다.

- 논문작성, 창작 활동을 하는 자,
- 비영리 학술활동·예술단체의 초청으로 학술 또는 순수 예술 활동에 종사하는 자,
- 대한민국의 고유문화 또는 예술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연구하거나 전문가(무형문화재 또는 국가공인 기능보유자 등을 말하며, 순수예술 분야의 연구단체나 해당 분야의 저명한 인사로부터 지도를 받는 자를 포함하나 영리목적의 사설학원에서의 연수자는 해당되지 않음)의 지도를 받으려는 자(예: 태권도 등 전통무예, 한국무용, 서예, 궁중음악, 참선, 농악 등)

이들에게 허용되는 활동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학술 또는 예술상의 활동'으로 한정된다. 다시 말해 '문화예술(D-1)' 체류자격의 이주민 문화예술인은 순수하게 '문화예술' 활동을 하되 그에 대한 경제적 대가는 받을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공기관, 고아원, 양로원, 무료급식소, 자선바자회, 국제전시회, 국제행사 등에서의 자원봉사'는 허용되고 그에 따른 '식비 및 교통비'는 지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법무부 발간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2020. 6)』, pp.23-4).

다른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이미 체류 중인 사람은 '문화예술(D-1)'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 허용된다.

- 해외입양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독일인,
- 6개월 미만 체류하는 캐나다인

요컨대 현행 법령이 정하는 '문화예술(D-1)' 체류자격은 이주민 문화예술인의 자유로운 문화예술 활동과 그에 따른 금전적 보상이나 지원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또 '유학(D-2)', '일반연수(D-4)' 등 다른 체류자격을 가지고 국내에 이미 체류 중인 사람 역시 이 체류자격에 신청할 자격이 없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 속에서 '문화예술(D-1)' 체류자격이라는 제도는 현실에서는 극히 적은 수의 사람에게만 이용되고 있다.

4. '예술흥행(E-6)' 체류자격

한편 '예술흥행(E-6)' 체류자격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법무부가 발간하는 『사증발급 안내매뉴얼(체류자격별 대상 첨부서류 등), 2020. 6.』(pp.144-6)에 따르면 이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래와 같은 사람으로 한정된다.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국 전에 사증발급을 통한 체류허가를 받아야 한다.

-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 활동
  - 창작활동을 하는 작곡가, 화가, 조각가, 공예가, 저술가 및 사진작가 등의 예술가
  - 음악, 미술, 문학, 사진, 연주, 무용, 영화, 체육, 기타 예술상의 활동에 관한 지도를 하는 자 (예 : 프로 및 아마추어 스포츠 감독, 오케스트라 지휘자 등)
-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 패션모델 등으로 출연하는 흥행활동
  - 출연형태나 명목을 불문하고 수익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로 연예, 연주, 연극, 운동 등을 하는 자 (예 : 프로 및 아마추어 스포츠 선수 등)
  - 스스로 연예, 연주, 연극 등에 출연하려는 자 뿐만 아니라 분장사, 매니저 등 동행하는 자를 포함함

『사증발급 안내매뉴얼(체류자격별 대상 첨부서류 등), 2020. 6.』(pp.144-6)에 따르면 '연예흥행(E-6)' 체류자격은 아래와 같이 3가지 세부항목으로 구분된다.

- 예술·연예(E-6-1):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 및 전문 방송연기에 해당하는 자와 공연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 연예활동에 종사하는 자 (작곡가·화가·사진작가 등 예술가, 오케스트라 연주·지휘자, 광고·패션모델, 바둑기사, 방송인, 연예인, 연극인, 분장사 등)
- 호텔·유흥(E-6-2): 'E-6-1'에 해당하지 않고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하는 자 (가요·연주자, 곡예·마술사 등)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의 부대시설 종사자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업소 중 공연법에 의해 등록된 공연장(예: 워커힐 호텔 등)에서 활동하려는 자
- 운동(E-6-3): 축구·야구·농구 등 프로 운동선수 및 그 동행 매니저 등으로 운동 분야에 종사하는 자 (축구·야구·농구 등 프로선수, 프로팀 감독, 매니저 등)

위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내 입국 전에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 체류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다. 이때 영상물등급위원회(「공연법」에 따른 공연, 「관광진흥법」에 따른 공연·연예활동)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가 발급하는 공연추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광고·패션모델)이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방송출연자 등)의 고용추천서, 소속회사(연맹) 고용추천서 및 주무부처 장관 협조공문 등의 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른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이미 체류 중인 사람이 '호텔·유흥(E-6-2)'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 다만 '연예·흥행(E-6-1)' 또는 '운동(E-6-3)'의 경우 아래의 조건을 갖출 경우 변경이 가능하다.

- 졸업예정자인 유학(D-2) 또는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 예술흥행(E-6)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와 고용계약 체결
- 무사증(B-1, B-2), 단기사증(C-3) 입국자: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국익차원에서 필요시', '청장 등이 재량으로'
- 현재의 체류자격 활동을 그만 두고 귀국 전에 단기간 방송출연 또는 모델활동 등을 하려는 경우
- 사증면제(B-1)로 입국한 독일인
- 전문외국인력(E-1, E-5, E-6, E-7) 자격소지자의 배우자로서 동반(F-3) 자격 소지자

아울러 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전문예술·체육인의 경우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 승인을 얻어 변경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 이주민 문화예술인의 현황

2020년 10월 현재 '문화·예술(D-1)'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사람은 2020년 10월 현재 33명(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20. 10.』, p.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예술행(E-6)' 체류자격을 가지고 국내에 체류 중인 사람은 3,173명으로 나타났다.

세부항목 별 통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청구 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 2019년 말 현재 예술·연예(E-6-1)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981명, 운동(E-6-3) 302명으로 나타났다. 호텔·유흥(E-6-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2,266명으로 이 가운데 80% 이상을 차지하는 1816명은 아시아 지역 출신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연예흥행(E-6) 체류자격의 2/3 이상은 호텔업시설이나 유흥업소에서 종사하고 있으며, 절반 이상은 그러한 시설에서 종사하는 아시아 지역 출신 여성이다.

한편 다른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뒤 예술·연예(E-6-1) 체류자격을 변경한 경우 역시 정보공개 청구 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2019년 1년 간 졸업예정인 유학생(D-2)이 해당 자격 요건을 갖추고,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와 고용계약 체결을 하여 예술 · 연예(E-6-1)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경우는 2건(아시아 출신), 졸업하여 구직(D-10) 활동 기간을 거친 후 예술·연예(E-6-1)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는 12건(북미 출신 4건, 아시아 출신 4건, 유럽 출신 4건)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통계에 따른 2019년 외국인 유학생 44,756명 가운데 '예체능계' 학생은 7,366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교육부. 2019. '2019년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통계'). 예체능계 4학년 외국인 유학생이 대략 1,800여명이라고 가정하면 졸업을 앞두고 또는 졸업 후 국내에서 문화예술인으로 취업하는 경우는 0.8%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 정부는 2018년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을 발표하면서 '주요 추진과제' 가운데 첫 번째로 '우수인재 유치 및 성장지원 강화'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유치 및 정주 인프라 강화', '유학생 등 교육기반 고도화', '성장지원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하였다(pp. 29-32).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우수인재'란 주로 '기업수요에 부응한 해외 전문 인력', '첨단 8개 분야 해외 우수기술인력', '4차 산업혁명 대응 기술 등 … 우수 연구자'로 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분야는 법무부, 과학기술통신부, 산업부의 관할로 정한다. 한편 '성장지원 확대'의 일환으로 '유학 취·창업 연계 확대'를 목표로 제시하면

서, '정부초청장학생의 이공계 전공자 선발 우대', '지방대 이공계 … 트랙 지속 확대', '일-학습 연계 유학비자 대상 확대', '뿌리산업 양성대학 확대',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 졸업자 … 선발', '외국인 기술차업자 … 발굴' 등의 세부 계획을 제시하였다. 이 분야는 교육부, 법무부, 산업부, 중소벤처부가 담당한다.

요컨대 정부의 '외국인정책'에는 '우수인재 유치'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지만, 이주민 문화예술인은 전혀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다. 특히 현재의 정책 우선순위를 고려하면 문화예술 분야 유학생의 경우 '우수인재'로 간주되어 지원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정책적 한계는 위에서 언급한 통계에서도 잘 드러난다.

6. 이주민 문화예술인의 피해 현실

'예술흥행(E-6)' 체류자격에 관하여서는 이미 지난 20여 년 동안 각종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들의 '불법체류' 등의 문제 발생과 제도 개선 방안 논의는 2002년에 이미 시작되었고(장미진 외. 2002.『외국연예인 국내취업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이들이 겪는 인권침해 문제도 꾸준히 지적되었다(국가인권위원회. 2008.『예술흥행 사증 외국인 인권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한중대 사회복지연구소. 2014.『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 인권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 피해 이주민들의 '노동착취', '인신매매', '성 착취' 문제는 특히 우려의 대상이었다(장하나 국회의원 등. 2014.『E-6 비자 이주노동자 인권실태와 개선방향 토론회』). 정부와 시민사회의 여러 개선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겪는 각종 문제들은 최근까지도 보고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등. 2019.『미등록 이주민 단속 실태 파악과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이주민 문화예술인들의 피해사례들은 '호텔·유흥(E-6-2)' 체류자격자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하면서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로 요약된다. '예술·연예(E-6-1)' 체류자격자의 경우 「공연법」에 따라 '전문 연예활동'에 종사하는데 임금체불, 열악한 노동조건 등 다른 분야의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피해와 비슷한 사례들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된다.

이주민 문화·예술인들이 인신매매, 성착취, 인권침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과는 별개로, 유학생이 졸업 후 국내에서 예술활동을 이어나가는 것을 가로막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더 많은 사례 조사와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

7. 해외 사례

이주민 문화예술인 체류자격에 관한 해외 사례를 검토하기 전에 국가의 정책을 논의할 때 '해외 사례 검토'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궁극적인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 해외 사례는 모두 모범적이고 한국 정부가 따라가야 할 모델인가? 이른 바 '선진국' 또는 경제적으로 성장한 국가의 모델은 한국 정부가 따라가기 좋은 모델인가? 정책 연구자 및 입안자가 해외 사례를 검토하면서 '좋은 모델', '모범 사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좋다는 것인가? 특정한 사회집단 또는 계급의 이해 관계를 대변하기에 더 유리하다는 의미는 아닌가? 또는 기존에 유지해 오던 정책을 정당화하거나 새로이 도입하려는 정책의 필요성을 정당화하기 위해 가져다 쓰는 사례는 아닌가? '좋은 모델'의 원칙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고민이 없이 또는 해당 국가의 역사적 및 사회적 맥락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과거에는 미국이나 일본의 제도를 그대로 베껴다 사용한 일이 많았고, 최근에는 이른바 '선진 주요 5개국' 정책검토라는 이름으로 소개하면서 그와 비슷한 정책을 제안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러한 정책 도입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실제로 이익을 얻을 집단은 누구이고, 손해를 볼 집단은 누구일지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

해외 사례를 검토할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원칙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해외 사례가 대한민국의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는 않는가, 국제적 인권 원칙에는 어긋나지 않는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인가, 사회적 불평등을 강화시킬 것인가 해소시키는 데 기여할 것인가와 같은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 발표에서는 연구 기간과 자원의 제한으로 한 국가의 제도를 간략히 소개한다. 임의로 선택된 국가의 사례일 뿐 모범 사례나 좋은 모델로 고려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정책의 이면에 어떠한 정책적 원칙이나 역사적 배경이 있는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 발표에서는 호주의 사례를 소개하지만 보다 충분한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여러 국가들의 다양한 사례와 국제적인 기준들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호주를 비롯한 다수 서구 국가들의 이주민 정책이 공통적으로 갖는 특징 가운데 한국의 정책과 크게 차이가 나는 지점들이 몇 가지 있다. 첫 번째는 이주민의 노동허가를 중심으로 제도가 형성되어 있는가, 내국인 사용자의 고용허가가 중심인가이다. 두 번째는 이주민이 일시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머물다 떠날(체류) 사람으로 간주하느냐, 곧 떠날 수도 있지만 그 사회의 미래의 전망을 공유하면서 계속 같이 살 수도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열어두느냐이다. 세 번째는 그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이주민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연구와 이해가 있는지, 아니면 편견에 의하여 또는 이익집단들의 이해충돌의 결과로 정책이 만들어지는가이다.

첫 번째와 관련하여 호주와 여러 서구 국가들은 이주민들이 특정한 기술이나 자격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포인트 시스템), 입국 이후 정해진 분야 내에서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내국인과 동등하게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구직활동을 할 수 있게도 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고용허가'를 중심으로 하는 시스템은 정해진 고용주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 직장을 옮기는 것을 극도로 어렵게 하는 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와 관련하여 호주와 여러 서구 국가들은 이주민이 입국할 당시부터 영주(정주)할 것으로 기대하거나, 임시로 체류하더라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영주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다. 반면 한국 정부는 '정주방지'를 이민정책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인간이 살면서 이사를 가면 그곳에 얼마나 오래 살게 될지 본인도 예측하기 어렵고, 설사 다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생주기의 변화에 따라 조건과 상황이 바뀌어 그 계획이 수정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즉 이주민이 영주권을 가지고 머물다가 국적을 취득할 수도 있지만, 그 나라가 마음에 들지 않아 본국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 임시체류 비자를 가지고 어느 나라에 도착했으나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해 귀국이 늦어지고 결국 그 나라에 정착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인간의 이동성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민에 관한 특정한 이념형에만 사로잡혀 정책을 수립할 경우 현실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그리고 현실에서 동떨어진 정책을 억지로 강제하다 보면 폭력이나 강제력이 수반하고 인권 침해로 이어지게 된다. 한국 정부가 지난 30여 년 동안 20–30만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상시적으로 존재하면서 계속해서 '단속'만을 주된 정책으로 삼는 것이 그러한 현실과 이념의 격차를 보여주는 예이다.

세 번째와 관련하여 한국정부의 이민정책은 '외국인'을 '인력', '기술인력', '저숙련인력' 또는 '인재'로만 간주한다. 경제적 또는 재정적 효율성이 높은 사람은 '인재', 그렇지 않지만 여전히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켜 줄 사람은 '인력', 원치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저숙련인력' 등으로 이주민을 구분한다. 다시 말해 이민정책이 인력시장이나 기업의 인사담당자의 역할만 할 뿐 사회의 장기적인 변화와 전망에 대해서는 살피지 못한다. '인재', '인력'에 문화예술인이 전혀 포함되지 않는 현실, 또는 '호텔'에서 '공연'을 하여 유흥을 제공해 주고, 사용자로 하여금 이익을 창출해내 줄 수 있는 사람들만 '예술·흥행' 체류자격을 받는다. 반면 호주 및 서구 국가들은 이주민이 장기간 거주하면서 그 사회의 문화예술 분야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차이점은 아래와 같은 호주의 문화예술인 비자 체계에 잘 드러난다.

호주의 취업 비자

영주 취업 비자	지역 기반 비자	지역 후원 이주 제도(하위분류 코드 187) 영주권(기술인/지역) 비자(하위분류 코드 191)
	기술 이민 비자	고용인 후원 제도(하위분류 코드 186) 기술인 자립 비자(하위분류 코드 189) 기술인 피후원 비자(하위분류 코드 190) 기술인 지역 비자(하위분류 코드 887)
	사업 투자 비자	창업 및 투자(영주) 비자(하위분류 코드 888) 사업 인재(영주) 비자(하위분류 코드 132)
	우수 인재 비자	우수 인재 비자(하위분류 코드 124) 글로벌 인재 비자(하위분류 코드 858)
단기 취업 비자 (2~5년 후 영주권 신청 가능)	단기 부족 기술군 비자(하위분류 코드 482) 단기 졸업생 비자(하위분류 코드 485) 기술 인정 졸업생 비자(하위분류 코드476) 기술인 지역(임시) 비자(하위분류 코드 489) 창업 및 투자(임시) 비자(하위분류 코드 188) 기술인 지역 기반(임시) 비자(하위분류 코드 491) 기술인 고용인 후원 지역(임시) 비자(하위분류 코드 494)	

직업 목록

중 · 장기 전략 기술 목록 (212개 직)	예술 관리자 또는 매니저, 무용가 또는 안무가, 음악 감독, 음악가(악기), 예술 감독…
단기 기술 직업 목록 (215개 직)	음악 전문가, 사진작가, 서적 또는 대본 편집인, 감독(영화, TV, 라디오, 무대), 필름 또는 비디오 편집가, 프로그램 감독(TV, 라디오), 무대 관리자, 기술 감독, 비디오 프로듀서, 미술관 또는 박물관 큐레이터, 원화가, 미술 강사, 무용 강사, 음악 강사, 카메라 기술가(영화, TV 라디오, 무대), 분장사, 음향 기술가, 공연 예술 기술가…
지역 직업 목록 (77개 직)	스포츠 관리자, 지역사회 예술직 근로자

8. 정책 제언

앞에서 논의된 바를 바탕으로 이주민 문화예술인 체류자격과 관련한 정책이 어떻게 개선될 수 있을지 아래와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이주민 문화예술인의 보호가 강화되어야 한다. 예술·연예(E-6-1) 체류자격으로 활동하는 이주민 문화예술인이 임금체불, 열악한 노동조건 등과 같은 문제를 겪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사례를 막기 위하여 엄격한 근로감독과 보호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호텔·공연(E-6-2) 체류자격 활동 이주민의 경우 인신매매, 성착취 피해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둘째, 예체능계 유학생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외국인 정책 및 유학생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예술 분야를 우수인재 또는 인력 유치 대상에 적극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유학생이 졸업 후 예술·연예(E-6-1) 또는 특정활동(E-7) 체류자격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개방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실의 필요를 반영한 이민·문화예술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이주민 문화예술인 실태 및 요구를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궁극적으로 이주민 문화예술인 활동을 허가하는 제도를 새로이 수립할 수 있을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약력〉

김철효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그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학사, 영국 에섹스대학교 인권연구소 석사, 호주 시드니대학교 사회학·사회정책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논문으로는 '외국인 "비합법" 노동시장에 대한 이론적 검토'(2020), '한국 내 난민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법률 및 정책의 현황 그리고 국제법에 따른 검토.'(2011), '인권으로서의 이주노동자 건강권에 관한 연구'(2006) 등이 있다.

이주민 문화예술인 체류자격 제도와 개선 방안

2021 ARKO 온라인 공청회
예술인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온라인 공청회
2021. 4. 16.

김철효 |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

이주민 현황

- 서론 – 이주민 문화예술인 체류자격 개선방안
- 이주민 현황
- 이주민 문화예술인 정책 부재
- 이주민 문화예술인 체류자격 제도 미비
- 이주민 문화예술인 피해 현실
- 해외사례 비교
- 결론 – 이주민 문화예술인 체류자격 개선방안

2

서론 - 이주민 문화예술인 체류자격 개선방안

- 이주민 문화예술인의 보호
  예술 · 연예(E-6-1) : 임금체불, 노동조건 감독 제도 보완 필요
  호텔 · 공연(E-6-2) : 인신매매, 성착취 근절
- 예체능계 유학생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 보장
  정책적으로 문화예술을 우수인재 유치 대상에 포함
  예술 · 연예(E-6-1) 또는 특정활동(E-7) 체류자격 개방
- 현실의 필요를 반영한 이민 · 문화예술 정책 수립
  이주민 문화예술인 실태 및 요구 조사
  이주민 문화예술인 활동 허가제도 검토

3

이주민 현황

- 외국인 이주민 + 귀화한 이주민 (이주민인구) : 총인구 4.5%
- 이주민의 국내출생 자녀 (이주배경인구) : 총인구 0.5% 이상
- 국내 이주민 유입 역사 30년

4

이주민 문화예술인 정책 부재

- 문화다양성 정책

  2014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2015년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기초연구』

  2021년 2월 문화다양성위원회 설립

  2021년 5월 문화다양성 기본계획 발표 예정

5

이주민 문화예술인 정책 부재

-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예산 : 30.13억 (2020년, 문화정책관)

  프로그램(1500) 창의적문화정책구현 >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정책개발 자문회의 및 워크숍 등 (2천만) / 문화다양성 증진 정책개발 (200만)

  항공료, 일비, 숙박비, 식비 (770만) / 문화다양성 정책 분야별 관계자 간담회 등 (187.6만)

  문화다양성 주간 행사 운영 및 캠페인 (1.22억)

  문화다양성 교육 (1.2억 = 교육연수 8백*10개 과정, 전문인력 양성과정 4천만)

  문화간 상호교류 및 소통 활성화 (무지개다리 사업 운영 22억)

  문화다양성 교육 (문화다양성 연구학교 운영지원 1천만*4개교)

  문화다양성축제 개최 지원 (6억)

Source | 문화체육관광부. 2019. 2020년 문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각목명세서. (https://www.mcst.go.kr/kor/s_data/budget/budgetView.jsp?pSeq=843, access 8 April 2021).

6

이주민 문화예술인 정책 부재

- 외국인 · 이주민 정책
  2007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
  2018년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2022)

7

이주민 문화예술인 정책 부재

-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2022)
  중점과제 I.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있는 개방
    1.1 우수인재 유치 및 성장지원 강화
    1.2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취업이민자 유치활동
  중점과제 IV.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4.1 이민자 인권보호 체계 강화
    4.2 여성 · 아동 등 취약 이민자 인권증진
    4.3 문화다양성 증진 및 수용성 제고

8

이주민 문화예술인 정책 부재

-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2022)
  중점과제 I.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있는 개방
    1.1 우수인재 유치 및 성장지원 강화
      (1) 유치 및 정주 인프라 강화
      (2) 유학생 등 교육기반 고도화
      (3) 성장지원 확대

9

이주민 문화예술인 정책 부재

-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2022)
  중점과제 I.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있는 개방
  1.1 우수인재 유치 및 성장지원 강화
  (1) 유치 및 정주 인프라 강화

① 정주환경 개선(법무부, 과기정통부)
② 기업수요에 부응한 해외 전문인력 유치활동 전개(산업부) - 인재유치 해외조직망 … 거점무역관 운영
③ 글로벌 인재유치센터 신설(법무부)
④ 우수 외국인 연구자 유치 · 활용(과기정통부) - 4차 산업혁명 대응 기술 등 국내 부족한 분야…
⑤ 우수인재 선별 기능 강화(법무부)

10

이주민 문화예술인 정책 부재

-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2022)
  중점과제 I.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있는 개방
  1.1 우수인재 유치 및 성장지원 강화
  (2) 유학생 등 교육기반 고도화

① 유학생 유치 확대 및 출신국 다변화(교육부)
② 대학의 국제화 역량 제고(교육부)
③ 외국인 대상 ICT 정책 및 기술전문가 과정 운영(과기정통부)

11

이주민 문화예술인 정책 부재

-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2022)
  중점과제 I.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있는 개방
  1.1 우수인재 유치 및 성장지원 강화
  (3) 성장지원 확대

① 국제장학프로그램 확대(교육부)
② 학습, 적응지원 강화(교육부, 법무부)
③ 뿌리산업 분야 숙련기능인력 공급 확대(법무부)
④ 유학 취 · 창업 연계 확대(교육부, 법무부, 산업부, 중소벤처부)
- 정부초청장학생의 이공계 전공자 선발 우대… | - 일-학습 연계 유학비자 …, 뿌리산업 양성대학 확대
-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 … 기술인력을 선발 | - 우수 아이템 기술 보유 외국인 기술창업자 발굴…

12

이주민 문화예술인 정책 부재

-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2022)
  중점과제 I.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있는 개방
  1.2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취업이민자 유치활동
  (1) 새로운 취업이민 수요 적극 대응

① 지역 수요 반영 방안 마련(법무부)
– 고령화에 따라 극심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농어업 등 산업 분야 우선 지원, 낙후지역 소재 사업장에 대한 외국인…
②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법무부)

13

이주민 문화예술인 정책 부재

-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2022)
  중점과제 I.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있는 개방
  1.2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취업이민자 유치활동
  (2) 비전문 취업이민자 유입 · 활용 체계 고도화

① 국민일자리보호 강화(고용부)
② 정주화 방지 강화(법무부, 고용부)
③ 유입단계 검증 제도 개선(법무부, 고용부) – 불법체류율…, 불법체류자 관리…

14

이주민 문화예술인 정책 부재

-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2022)
  중점과제 IV.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4.1 이민자 인권보호 체계 강화
  4.2 여성 · 아동 등 취약 이민자 인권증진
  4.3 문화다양성 증진 및 수용성 제고

15

이주민 문화예술인 정책 부재

-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2022)
  중점과제 IV.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4.1 이민자 인권보호 체계 강화
  (1) 차별방지 제도 강화
  (2) 체계적 인권보호 시스템 구축
  (3) 취업이민자 인권증진

16

이주민 문화예술인 정책 부재

-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2022)
  중점과제 IV.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4.2 여성 · 아동 등 취약 이민자 인권증진
  (1) 농축산어업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
  (2) 여성 및 아동 인권보호 강화
  (3) 외국인 보호 · 단속 관련 인권 보장

17

이주민 문화예술인 정책 부재

-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2022)
  중점과제 IV.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4.2 여성 · 아동 등 취약 이민자 인권증진
  (2) 여성 및 아동 인권보호 강화

① 예술흥행 종사자 구제절차 접근 지원(여가부)
– 외국인 지원시설 …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 … 서비스 제공, 업소 · 공연기획사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점검
②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내실화(여가부)
③ 국내 체류 외국인 아동 인권증진방안 마련(교육부, 법무부)
④ 인신매매 여부 확인 강화(법무부) – 예술흥행자격 소지자 … 교육 시 자유로운 계약 여부 확인 등

18

이주민 문화예술인 정책 부재

-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2022)
  중점과제 IV.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4.3 문화다양성 증진 및 수용성 제고
  (1) 문화다양성 관련 프로그램 활성화 및 지표 관리
  (2) 문화다양성 이해 제고

19

이주민 문화예술인 정책 부재

-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2022)
  중점과제 IV.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4.3 문화다양성 증진 및 수용성 제고
  (1) 문화다양성 관련 프로그램 활성화 및 지표 관리

① 공공부문 프로그램 강화(교육부, 법무부, 문체부)
– 교원 및 관리자 대상 집합 · 원격교육 | – 세계인주간 및 세계인의 날 행사 | –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② 다언어 프로그램 편성(문체부)
③ 문화다양성 온라인 아카이브 운영(문체부)
④ 문화다양성 인식 지표 관리(문체부)

20

이주민 문화예술인 정책 부재

-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2022)
  중점과제 IV.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4.3 문화다양성 증진 및 수용성 제고
  (2) 문화다양성 이해 제고

① 학교 구성원의 다문화 수용도 제고(교육부) – 다문화 중점학교
② 문화다양성 교육 프로그램 확산(문체부) – 국민 · 이민자 등 대상 특성별 맞춤형 교안
③ 세계시민교육 활성화(교육부)
④ 상호 문화이해 활동 촉진(문체부)
– 이주민 자조모임의 문화 예술 활동지원,
지역 내 이주민과 지역주민 간의 문화예술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등 무지개다리사업 확대

21

이주민 문화예술인 정책 부재

- 다문화가족 정책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2018년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
  정책과제 1. 다문화가족 장기정착 지원
  2. 결혼이민자 다양한 사회참여 확대
  3.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 강화
  4.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5. 협력적 다문화가족 정책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22

이주민 문화예술인 정책 부재

-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 예산 : 925.26억 (2021년)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 422.23억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 92.38억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 330.33억
  사회복무요원 배치지원 : 8.3천만
  가족전용상담전화 : 50.53억
  다문화가족 사회통합기반구축 : 7.03억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 19.73억
  다문화 수용성 조사 : 2.2억

Source | 여성가족부. 2020. 2021년 여성가족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5, access 8 April 2021).

23

이주민 문화예술인 체류자격 제도 미비

- 문화예술 (D-1)
- 예술흥행 (E-6)
- 구직 (D-10)
- 교수 (E-1) / 연구 (E-3)
- 전문직업 (E-5) / 특정활동 (E-7) / 비전문취업 (E-9)

Source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장기체류자격(제12조 관련].

24

이주민 문화예술인 체류자격 제도 미비

- 문화예술 (D-1)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문화 또는 예술 관련 활동을 하려는 사람 (대한민국의 전통문화 또는 예술에 대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하거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 예술흥행 (E-6)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 · 패션 모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려는 사람

Source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장기체류자격(제12조 관련).

25

이주민 문화예술인 체류자격 제도 미비

- 구직 (D-10)
  [예술흥행 (E-6) 체류자격 중 … 공연업소의 종사자는 제외]
  … 취업하기 위하여 연수나 구직활동
- 교수 (E-1)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 전문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 · 지도 활동
- 연구 (E-3)
  공공기관 · 민간단체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각종 연구소에서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 사회과학 · 인문학 · 예체능 분야의 연구 …

Source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장기체류자격(제12조 관련).

26

이주민 문화예술인 체류자격 제도 미비

- 전문직업 (E-5)
  ~~외국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그 밖에 국가공인 자격이 있는 사람~~
- 특정활동 (E-7)
  ~~공공기관 · 민간단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
- 비전문취업 (E-9)
  ~~일정 자격이나 경력 등이 필요한 전문직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외~~

Source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장기체류자격(제12조 관련).

27

이주민 문화예술인 체류자격 제도 미비

- 문화예술 (D-1)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문화 또는 예술 관련 활동

  (예외: 공공기관, 고아원, 양로원, 무료급식소, 자선바자회, 국제전시회, 국제행사 등에서 자원봉사에 따른 식비 및 교통비)

  체류 중 :

  - 유학(D-2), 일반연수(D-4), 구직(D-10) → D-1 변경 불가
  - 해외입양 외국국적/사증면제 독일인/6개월 미만 캐나다인 → D-1 변경 가능

2021년 2월 현재 문화예술 (D-1) : 39명 (아시아 24, 북미 5, 유럽 10)

Source | 법무부. 2020. 『사증발급 안내 매뉴얼』; 법무부. 2021.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 월보 2021년 2월호』.

28

이주민 문화예술인 체류자격 제도 미비

- 예술흥행 (E-6)

  예술·연예 (E-6-1)

  호텔·유흥 (E-6-2)

  운동 (E-6-3)

2021년 2월 현재 예술흥행 (E-6) : 3173명

필리핀 1635(143/1492), 미국 163(123/40), 일본 162(61/101),
우크라이나 136(57/79), 러시아 118(16/72)

Source | 법무부. 2020. 『사증발급 안내 매뉴얼』; 법무부. 2021.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 월보 2021년 2월호』.

29

이주민 문화예술인 체류자격 제도 미비

- 예술·연예 (E-6-1)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 및 전문 방송연기에 해당하는 자,
  공연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 연예활동에 종사하는 자
  (작곡가·화가·사진작가 등 예술가, 오케스트라 연주·지휘자,
  광고·패션모델, 바둑기사, 방송인, 연예인, 연극인, 분장사 등)

Source | 법무부. 2020. 『사증발급 안내 매뉴얼』.

30

이주민 문화예술인 체류자격 제도 미비

- 예술 · 연예 (E-6-1)

  입국 시 : 사증발급인정서 통해 체류자격 부여

  ← 영상물등급위원회 (공연법에 따른 공연) 공연추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광고 · 패션모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방송출연자 등) 고용추천서

  체류 중 - 졸업예정 유학(D-2), 구직(D-10): 해당 기관 · 단체와 고용계약 체결
  - 무사증(B-1, B-2), 단기사증(C-3): 청장 등의 재량(불가피한 사유, 국익차원)
  - 귀국 전 단기간 방송출연, 모델활동 / - 사증면제(B-1) 독일인
  - 전문외국인력 배우자(F-3)
  -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전문예술인 (본부 승인)

Source | 법무부. 2020. 『사증발급 안내 매뉴얼』.

31

이주민 문화예술인 체류자격 제도 미비

- 예술 · 연예 (E-6-1)

  2019년 말 981명(아시아 304/225, 유럽 115/136, 북미 62/32)

  2019년 유학생 (D-2) → 예술 · 연예 (E-6-1) : 2명 (아시아)

  구직 (D-10) → 12명 (북미 4, 아시아 4, 유럽 4)

  2019년 예체능계 유학생 7366명 (전체 44756)

  → 4학년 예체능계 유학생 국내 취업률 0.8%

Source | 법무부. 2020. 『사증발급 안내 매뉴얼』; 법무부. 2020. 공공기관 정보공개 청구 자료.

32

이주민 문화예술인 체류자격 제도 미비

- 호텔 · 유흥 (E-6-2)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하는 자 (가요 · 연주자, 곡예 · 마술사 등)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의 부대시설 종사자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업소 중 공연법에 의해 등록된 공연장(예: 워커힐 호텔 등)에서 활동하려는 자

Source | 법무부. 2020. 『사증발급 안내 매뉴얼』.

33

이주민 문화예술인 체류자격 제도 미비

- 호텔 · 유흥 (E-6-2)

  입국 시 : 사증발급인정서 통해 체류자격 부여

  ← 영상물등급위원회 (관광진흥법에 따른 공연 · 연예활동),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 지역) 공연추천서

  체류 중 : E-6-2로 변경 불가능

  2019년 말 2266명(아시아 226/1816, 유럽 90/133, 남미 1/0)

Source | 법무부. 2020. 『사증발급 안내 매뉴얼』.

34

이주민 문화예술인 체류자격 제도 미비

- 운동 (E-6-3)

  축구 · 야구 · 농구 등 프로 운동선수 및 그 동행 매니저 등으로 운동 분야에 종사하는 자 (프로선수, 프로팀 감독, 매니저 등)

  입국 시 : 사증발급인정서 통해 체류자격 부여

  ← 소속회사(연맹) 고용추천서, 주무부처장관 협조공문 등

Source | 법무부. 2020. 『사증발급 안내 매뉴얼』.

35

이주민 문화예술인 체류자격 제도 미비

- 특정활동 (E-7)

  공공기관 · 민간단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

  전문성 수준 및 국민대체성 등에 따라 도입 및 관리기준을 달리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전문인력 (E-7-1) / 준전문인력 (E-7-2)

  일반기능인력 (E-7-3) / 숙련기능 점수제 인력(E-7-4)

Source | 법무부. 2020. 『사증발급 안내 매뉴얼』.

36

이주민 문화예술인 체류자격 제도 미비

- 전문인력 (E-7-1)

  관리자 15개 직종 :

  기업 고위임원, 문화 · 예술 · 디자인 · 영상 관련 관리자, 제품 생산관련 관리자, 숙박 · 여행 · 오락 · 스포츠 관련 관리자 …

  전문가 · 관련종사자 52개 직종 :

  생명과학 전문가, 사회과학 연구원,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정보 보안 전문가, 전기공학 기술자, 간호사, 법률 전문가, 여행상품 개발자, 광고 · 홍보 전문가, 행사 기획자, 디자이너, 영상관련 디자이너

Source | 법무부. 2020. 『사증발급 안내 매뉴얼』.

37

이주민 문화예술인 체류자격 제도 미비

- 준전문인력 (E-7-2)

  사무종사자 5개 직종 :

  면세점 · 제주영어교육도시 판매 사무원, 항공운송 사무원, 호텔 접수 사무원, 의료 코디네이터, 고객상담 사무원

  서비스 종사자 4개 직종 :

  운송 서비스 종사자, 관광 통역 안내원, 카지노 딜러, 주방장 및 조리사

Source | 법무부. 2020. 『사증발급 안내 매뉴얼』.

38

이주민 문화예술인 체류자격 제도 미비

- 일반기능인력 (E-7-3)

  6개 직종 : 동물 사육사, 양식기술자, 할랄 도축원, 악기제조 · 조율사, 조선용접공, 항공기 정비원

- 일반기능인력 (E-7-4)

  3개 직종 :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 농림축산어업 숙련기능인, 일반 제조업체 · 건설업체 숙련기능공

Source | 법무부. 2020. 『사증발급 안내 매뉴얼』.

39

이주민 문화예술인 피해 현실

장미진 외. 2020. 『외국연예인 국내취업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 한국문화정책개발원.

국가인권위원회. 2008. 『 예술흥행 사증 외국인 인권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 한중대 사회복지연구소. 2014. 『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 인권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

장하나 국회의원 등. 2014. 『 E-6 비자 이주노동자 인권실태와 개선방향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2019. 『 미등록 이주민 단속 실태 파악과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Source | 법무부. 2020. 『 사증발급 안내 매뉴얼 』.

40

해외사례 비교

- 해외사례 검토의 의미
- 기존 정책의 정당화 vs 정책 개선을 위한 모색
- 역사적 배경, 사회적 및 정치적 맥락
- 이민 경험, 선진국 담론
- 호주 사례 – 이민자의 노동허가, 영주권 중심 제도
  (한국은 고용허가, 임시체류 중심 제도)

41

해외사례 비교 (호주)

Permanent work visas (point system)
Regional visas
- Regional Sponsored Migration Scheme (subclass 187)
- Permanent Residence (Skilled Regional) visa (subclass 191)

Skilled migration visas
- Employer Nomination Scheme (subclass 186)
- Skilled Independent visa (subclass 189)
- Skilled Nominated visa (subclass 190)
- Skilled Regional visa (subclass 887)

Business investment visas
- Business Innovation and Investment (permanent) visa (subclass 888)
- Business Talent (Permanent) visa (subclass 132)

Distinguished talent visas
- Distinguished Talent visa (subclass 124)
- Global Talent visa (subclass 858)

Temporary work visas (application for PR after 2-5 years)
- Temporary Skill Shortage visa (subclass 482)
- Temporary Graduate visa (subclass 485)
- Skilled-Recognised Graduate visa (subclass 476)
- Skilled Regional (provisional) visa (subclass 489)
- Business Innovation and Investment (provisional) visa (subclass 188)
- Skilled Work Regional (Provisional) visa (subclass 491)
- Skilled Employer Sponsored Regional (provisional) visa (subclass 4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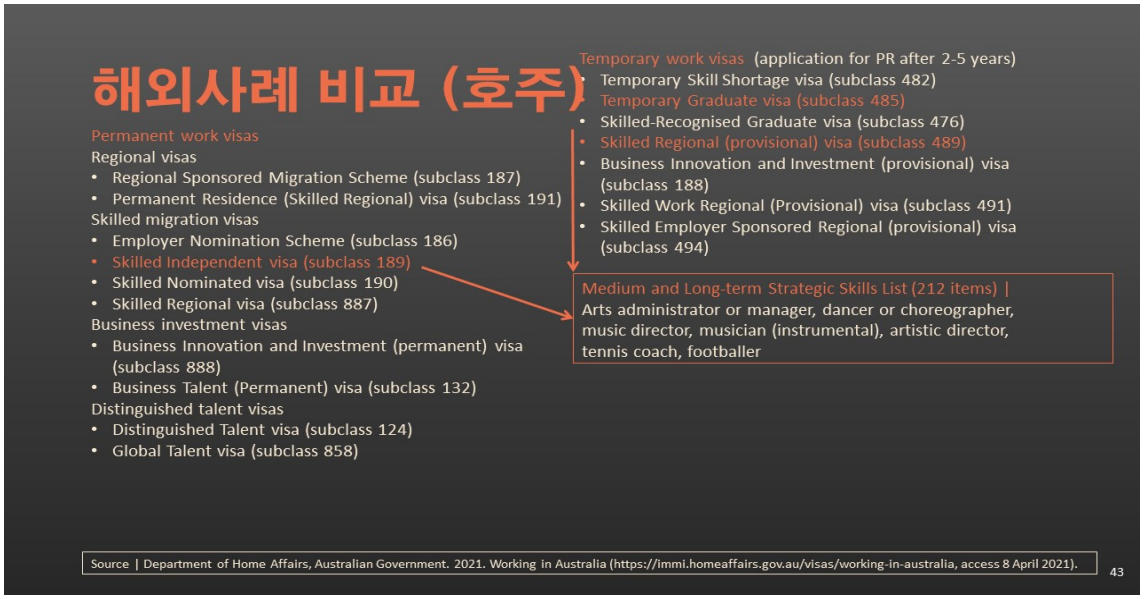
Short stay work visas
Working Holiday Maker visas
- Work and holiday (subclass 462)
- Working holiday visa (subclass 4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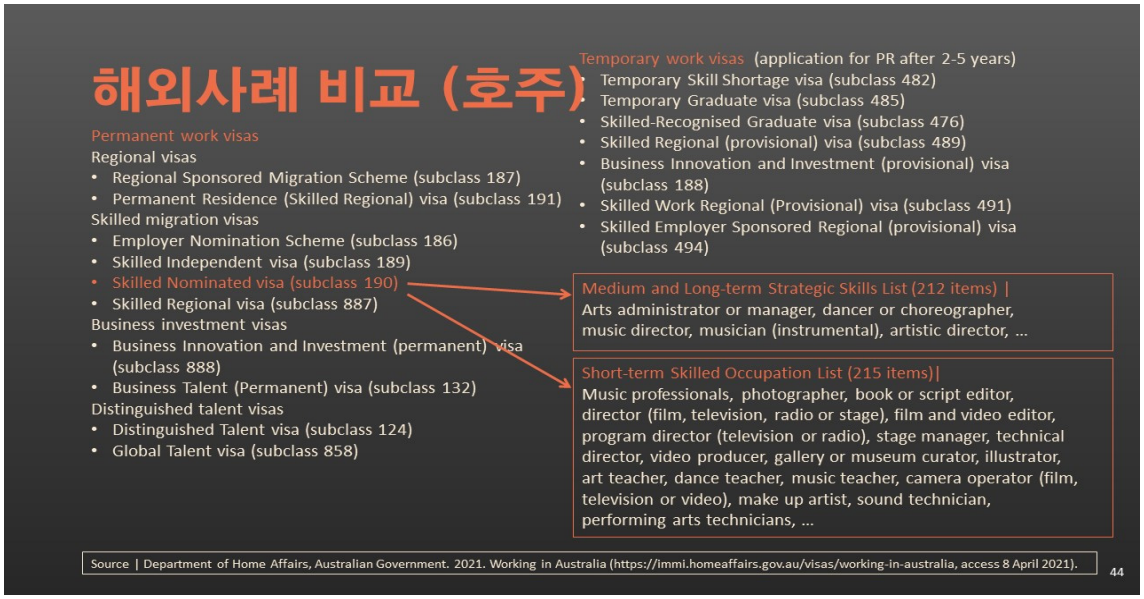
Pacific and seasonal work visas
- Temporary Work (International Relations) visa (subclass 403) – Pacific Labour scheme / Seasonal Worker Pro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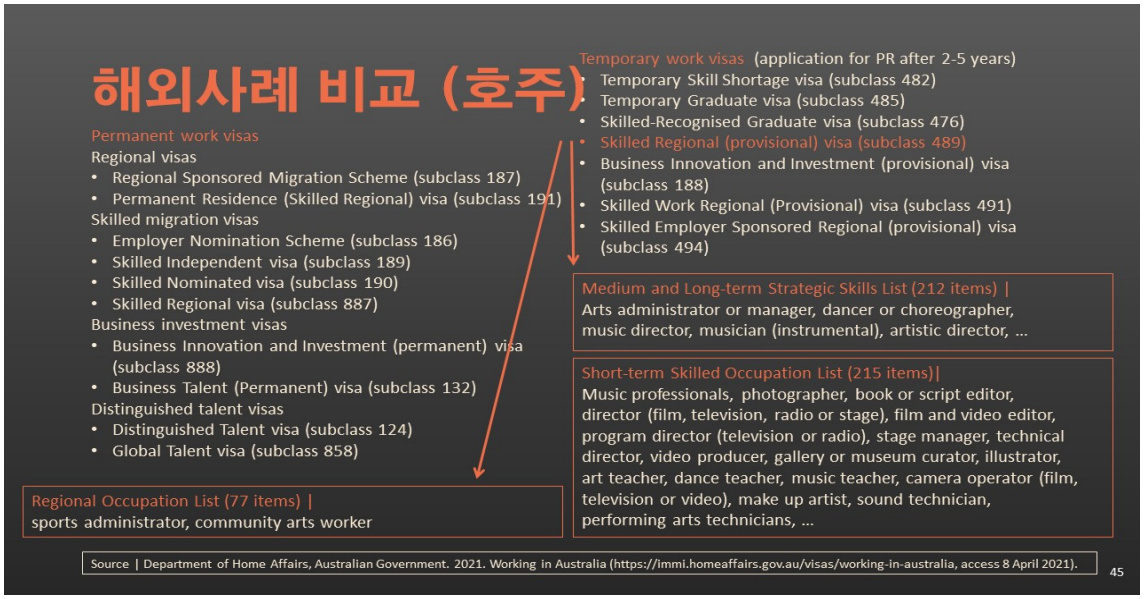
Temporary activity and specialist visas
- Temporary Activity visa (subclass 408)
- Temporary Work (Short Stay Specialist) visa (subclass 400)

Source | Department of Home Affairs, Australian Government. 2021. Working in Australia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working-in-australia, access 8 April 2021).

42


해외사례 비교 (호주)
Permanent work visas
Regional visas
• Regional Sponsored Migration Scheme (subclass 187)
• Permanent Residence (Skilled Regional) visa (subclass 191)
Skilled migration visas
• Employer Nomination Scheme (subclass 186)
• Skilled Independent visa (subclass 189)
• Skilled Nominated visa (subclass 190)
• Skilled Regional visa (subclass 887)
Business investment visas
• Business Innovation and Investment (permanent) visa (subclass 888)
• Business Talent (Permanent) visa (subclass 132)
Distinguished talent visas
• Distinguished Talent visa (subclass 124)
• Global Talent visa (subclass 858)
Temporary work visas (application for PR after 2-5 years)
• Temporary Skill Shortage visa (subclass 482)
• Temporary Graduate visa (subclass 485)
• Skilled-Recognised Graduate visa (subclass 476)
• Skilled Regional (provisional) visa (subclass 489)
• Business Innovation and Investment (provisional) visa (subclass 188)
• Skilled Work Regional (Provisional) visa (subclass 491)
• Skilled Employer Sponsored Regional (provisional) visa (subclass 494)
Medium and Long-term Strategic Skills List (212 items) |
Arts administrator or manager, dancer or choreographer, music director, musician (instrumental), artistic director, tennis coach, footballer
Source | Department of Home Affairs, Australian Government. 2021. Working in Australia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working-in-australia, access 8 April 2021).
43


해외사례 비교 (호주)
Permanent work visas
Regional visas
• Regional Sponsored Migration Scheme (subclass 187)
• Permanent Residence (Skilled Regional) visa (subclass 191)
Skilled migration visas
• Employer Nomination Scheme (subclass 186)
• Skilled Independent visa (subclass 189)
• Skilled Nominated visa (subclass 190)
• Skilled Regional visa (subclass 887)
Business investment visas
• Business Innovation and Investment (permanent) visa (subclass 888)
• Business Talent (Permanent) visa (subclass 132)
Distinguished talent visas
• Distinguished Talent visa (subclass 124)
• Global Talent visa (subclass 858)
Temporary work visas (application for PR after 2-5 years)
• Temporary Skill Shortage visa (subclass 482)
• Temporary Graduate visa (subclass 485)
• Skilled-Recognised Graduate visa (subclass 476)
• Skilled Regional (provisional) visa (subclass 489)
• Business Innovation and Investment (provisional) visa (subclass 188)
• Skilled Work Regional (Provisional) visa (subclass 491)
• Skilled Employer Sponsored Regional (provisional) visa (subclass 494)
Medium and Long-term Strategic Skills List (212 items) |
Arts administrator or manager, dancer or choreographer, music director, musician (instrumental), artistic director, ...
Short-term Skilled Occupation List (215 items)|
Music professionals, photographer, book or script editor, director (film, television, radio or stage), film and video editor, program director (television or radio), stage manager, technical director, video producer, gallery or museum curator, illustrator, art teacher, dance teacher, music teacher, camera operator (film, television or video), make up artist, sound technician, performing arts technicians, ...
Source | Department of Home Affairs, Australian Government. 2021. Working in Australia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working-in-australia, access 8 April 2021).
44


해외사례 비교 (호주)
Permanent work visas
Regional visas
• Regional Sponsored Migration Scheme (subclass 187)
• Permanent Residence (Skilled Regional) visa (subclass 191)
Skilled migration visas
• Employer Nomination Scheme (subclass 186)
• Skilled Independent visa (subclass 189)
• Skilled Nominated visa (subclass 190)
• Skilled Regional visa (subclass 887)
Business investment visas
• Business Innovation and Investment (permanent) visa (subclass 888)
• Business Talent (Permanent) visa (subclass 132)
Distinguished talent visas
• Distinguished Talent visa (subclass 124)
• Global Talent visa (subclass 858)
Temporary work visas (application for PR after 2-5 years)
• Temporary Skill Shortage visa (subclass 482)
• Temporary Graduate visa (subclass 485)
• Skilled-Recognised Graduate visa (subclass 476)
• Skilled Regional (provisional) visa (subclass 489)
• Business Innovation and Investment (provisional) visa (subclass 188)
• Skilled Work Regional (Provisional) visa (subclass 491)
• Skilled Employer Sponsored Regional (provisional) visa (subclass 494)
Medium and Long-term Strategic Skills List (212 items) |
Arts administrator or manager, dancer or choreographer, music director, musician (instrumental), artistic director, ...
Short-term Skilled Occupation List (215 items)|
Music professionals, photographer, book or script editor, director (film, television, radio or stage), film and video editor, program director (television or radio), stage manager, technical director, video producer, gallery or museum curator, illustrator, art teacher, dance teacher, music teacher, camera operator (film, television or video), make up artist, sound technician, performing arts technicians, ...
Regional Occupation List (77 items) |
sports administrator, community arts worker
Source | Department of Home Affairs, Australian Government. 2021. Working in Australia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working-in-australia, access 8 April 2021).
45

결론 - 이주민 문화예술인 체류자격 개선방안

- 이주민 문화예술인의 보호
  예술 · 연예(E-6-1) : 임금체불, 노동조건 감독 제도 보완 필요
  호텔 · 공연(E-6-2) : 인신매매, 성착취 근절
- 예체능계 유학생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 보장
  정책적으로 문화예술을 우수인재 유치 대상에 포함
  예술 · 연예(E-6-1) 또는 특정활동(E-7) 체류자격 개방
- 현실의 필요를 반영한 이민 · 문화예술 정책 수립
  이주민 문화예술인 실태 및 요구 조사
  이주민 문화예술인 활동 허가제도 검토

46

2부 〈사례공유〉

이주민 예술가 사례 발표 1

엠마누엘 사누 (부르키나파소 출신 현대 무용가/ 무용단 쿨레칸 대표 및 안무가)

안녕하세요, 저는 엠마누엘 사누라고 합니다. 쿨레칸의 댄서이자 안무가입니다. 한국 온 지는 8년 되었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7년 전 오늘 세월호 참사로 목숨을 잃은 모든 분들을 위한 묵념의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모두가 기억할 것이며 편히 잠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공청회가 열릴 수 있게 노력해 주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김남국 국회의원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 공청회를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제가 한국에서 발표한 작품의 영상을 짧게 보겠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는 제가 하는 일 덕분에 유럽 곳곳을 다니며 일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는 포천 아프리카예술박물관의 초청을 받아 (예술가 비자를 받아)오게 되었습니다. 아시아에는 처음 오는 것이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해 궁금했고 그래서 한국에 빨리 오고 싶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 계약 조건과 노동 상황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한국어나 영어 그 어느 것도 못할 때라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끝나는 1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 후 우리 모두는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결정했는데, 당시 저희의 일을 관리하던 박물관장은 비행기 삯을 내지 않고선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계약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싸워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도와줄 분들을 찾기 시작했고, 신의 가호 덕분에 함께 싸워 줄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포천 아프리카예술박물관에서 하던 일은 제가 한국에서 하고자 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박물관 일이 끝나고 한국에 남기로 결심했습니다. 왜냐면 한국인들이 아프리카 문화, 특히 오늘날의 아프리카 문화를 모르는 듯 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는 세계화의 시대에 살고 있고, 현대 아프리카는 창조하고 발명하고 개발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남과 공유를 좋아합니다. 2014년부터 하자작업장학교, 성미산학교를 비롯한 다양한 학교에서 무용수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년들을 만난다는 건 제겐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춤을 통해 어떻게 이들이 그들 스스로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이끌 것인지를 고민했습

니다. 세상으로의 문을 열기 위해선 우리 모두 이러한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도 분명 새로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일상에서 춤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믿는 분들과 함께 춤 커뮤니티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연령대가 존재하며, 서로 다른 점이 있어도 서로 존중합니다. 제 생각에 예술이 이를 가능케 하는 것 같습니다.

작품을 만들 때, 전 우선 관객을 생각합니다. 현재의 제 관객은 한국 관객들이죠. 그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는지를 생각합니다. 한국 관객들은 제 1순위입니다. 제 작품은 여기에 있는 한국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한국인 무용수, 음악가, 제작자 등 함께 일하는 이들도 한국인입니다.

제 생각에 전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 모두 한국 사회에 깊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오랫동안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외국인이기 때문에 제외되는 것도 많습니다. 가까운 예로, 제가 진행하고자 하는 예술 프로젝트를 지원할 자격 또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을 때, 내가 이 사회에서 제외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프로젝트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예술가라면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모두가 공통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회라는 건 저희 같은 예술가들에겐 큰 안도감을 줍니다. 노마드처럼 이곳저곳을 다니며, 영감을 주는 곳에 머물고, 거기에 남아 예술을 나누고, 또 그곳의 사람들과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이들이 바로 예술가입니다.

e-6 비자를 갖고 있을 때, 저는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저보다 저의 비자를 만든 대표가 항상 옳다고 여겨집니다. 나의 권리를 침해받는 일이 발생해, 일을 지속하기 어렵다 판단되어도 멈출 수 없고, 만약 내가 일을 멈춘다면, 그는 나의 비자를 취소할 힘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5년 넘게 한국에 거주한 예술가라면, 우리 스스로 자신의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기회를 준다면, 정말 큰 안정감을 줄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외국인 예술가들을 문화예술을 표현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식하고 있는가요? 한국의 TV 광고나 프로그램을 보면, 한국은 전 세계에 열려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다고 보입니다. 앞으로 외국 예술가들의 대우와 체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요?

〈약력〉

엠마누엘 사누

현대무용가 '제르멘 아코니(Germaine Acogny)', '살리아 사누(Salia Sanou)', '케틀리 노엘(Kettly Noel)' 등으로부터 수련 및 무용수 로서 작품에 참여했고 서아프리카 만데문화권 전통춤들과 유럽 고전무용, 즉흥춤 등 다양한 테크닉들을 수련했다. 2002년에는 동료 안무가 3명과 함께 무용단 '쿨레칸'을 설립하여 아프리카 및 유럽을 오가며 활발하게 창작 및 공연, 교육 활동을 펼쳐오다가 2011년 한국에 예술 연예 E6-1 비자로 입국해 아프리카박물관에서 일했다. 2012년 박물관에서 자신이 겪은 외국인 예술가 노동착취 사건을 고발하면서 엠마누엘 사누의 이름이 한국 사회에 알려졌다. 〈더게베〉, 〈빨래는 집에서〉, 〈이리바〉, 〈무엇을 찾고 있는가, 거기엔 아무 것도 없어〉, 〈보이지 않는 손〉 등의 작품에 안무가 및 무용수로 참여했으며, 2016년에는 한국예술평론가협의회로부터 '심사위원선정 특별예술가상'을 수상했다.

〈Artist Talk〉
Case Presentation by Immigrant Artist ①

Emmanuel Sanou (Dancer, Choreographer from Burkina Faso / Koule Kan dance company)

Bonjour. Je m'appelle Emmanuel Migaëlle Sanou. Je suis danseur et chorégraphe dans la compagnie de danse Koulé Kan. Cela fait 8 ans que je vis en Corée.

Avant de commencer j'aimerais solliciter à nos audience de se lever pour une minute de silence pour tous ces jeunes qui ont perdu leur vie en séjour mémorial ce dont toute la Corée se souvient que leur âme repose en paix. Merci.

Merci beaucoup à l'ARKO et Monsieur le Député Kim Nam Gook pour son effort pour que cette conférence ait lieu aujourd'hui et merci infiniment à toutes les autorités qui ont soutenu ce forum.

Avant de parler, on va regarder quelques images de mes pièces. merci.

Avant de venir en Corée, par la grâce de mon travail j'ai eu expériences à voyager dans beaucoup de pays d'européen. je n'avais pas choisi de venir en Corée mais j'étais invité pour venir travailler. Et j'étais très content parce que c'était la première fois que je venais dans le continent asiatique. J'étais très curieuse par rapport à la culture coréen, j'avais hâte de venir en corée. Quand je suis arrivé en Corée tout à bouleverser d'un coup les conditions de contrat ont été changées et les conditions de travail aussi. En ce moment, on ne pouvait pas parler ni en coréen ni en anglais. On n'avait pas le choix donc on a travaillé jusqu'à 1 an pour finir notre contrat. Après ça, on a décidé de retourner dans notre pays, le directeur nous dit que ce n'est pas possible donc j'étais obligé de signer une autre contrat. Après ça, j'ai décidé de lutter contre le musée. Directement, j'ai commencé à chercher les personnes qui pouvaient m'aider à lutter contre eux par la grâce de dieu j'ai eu les gens pour m'aider.

C'est qu'on faisait au musées, ce n'était pas ça que je voulais faire en Corée. Après avoir fini avec le musée, j'ai décidé de rester en Corée parce que j'ai su que les coréen ne connaissaient pas la culture africaine et surtout l'Afrique d'actuel. Nous sommes dans le monde des globalisation, et de monde contemporain, l'Afrique qui crée, qui invente, qui développe l'Afrique qui avance aussi.

Moi personnellement j'aime les rencontrer et les partager. J'ai commencé à donner des cours de danse à l'école de Haja, Sungmisan, pour moi, rencontrer les adolescents est très important. Avec la danse, comment les amener à s'exprimer librement, accepter l'autre comme il est. Je pense qu'on a besoin de se diversifier pour s'ouvrir au monde. Je pense que c'est une nouvelle expérience pour les élèves aussi.

J'ai aussi fondé une communauté de danse avec les gens qui pensent que la danse est très importante dans leur vie quotidienne. Dans notre communauté, il y a vraiment beaucoup de différence d'âge, on se respecte entre nous quelle qu'en soit la différence et pour moi c'est que l'art qui peuvent faire ça.

Et aussi 'Nodeul Yahak' et 'People First ' je pars là-bas c'est pour contribuer ce que je peux faire. C'est pas seulement qu'ils ont besoin de moi, je pense qu'on a besoin l'un de l'autre quel qu'en soit qui nous sommes riches ou pauvres. On a toujours besoin de quelque chose envers l'autre. Je donne et je reçois aussi avec eux. J'ai appris comment mieux viv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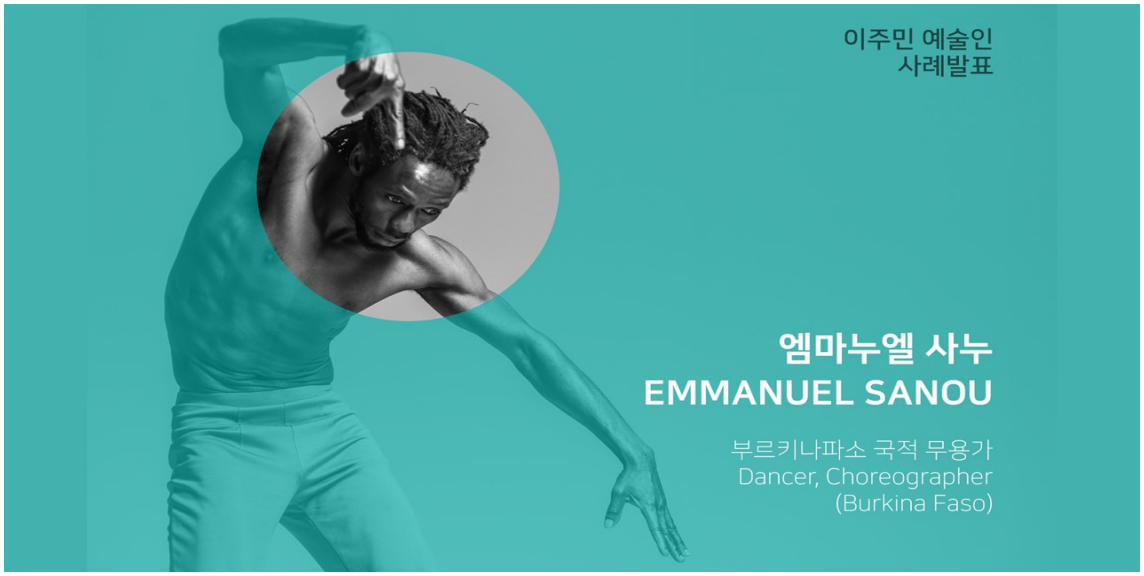
Avant de m'exprimer en tant qu'un artiste étranger de ce que je ressens, je m'excuse d'abord auprès de tout le monde. La parole est très difficile. En parlant si j'ai offensé quelqu'un ce n'est pas mon intention. Je n'ai rien, je ne peux rien faire et je ne suis rien et je n'ai aucun droit de dire quelque chose dans la loi coréen.

Si je crée mes pièces, je pense d'abord à mon public. Mon public qui est les coréen qu'est ce que les coréen aime et qu'est-qu'il veulent voir. Ce sont les coréen qui sont mes priorités. Mon spectacle c'est pour les coréen. Je travaille avec les coréen, danseurs, musiciens et producteurs sont tous les coré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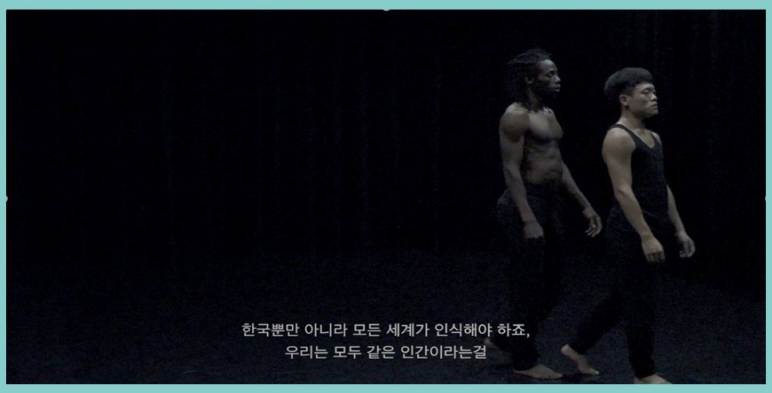
Personnellement je suis vraiment engagé dans la vie quotidienne, la vie sociale en Corée. Cependant, même si vous vivez ici depuis longtemps, il y a beaucoup de choses qui sont exclues parce que vous êtes étranger. Avec tout ça si je vois que

j'ai mes projets et que je n'ai pas le droit d'avoir le soutien, je me sens un peu délaissé, un peu écarté. J'espère que dans le futur qu'on va aussi avoir la chance d' appliquer notre projet même si le projet ne serait pas choisi. Mais donner la chance ça serait un très grand soulagement pour nous les artistes. Nous sommes comme les nomades, on voyage beaucoup là qu'on se sent bien, là que nous nous inspirons, on reste là-bas, on partage, on donne et on reço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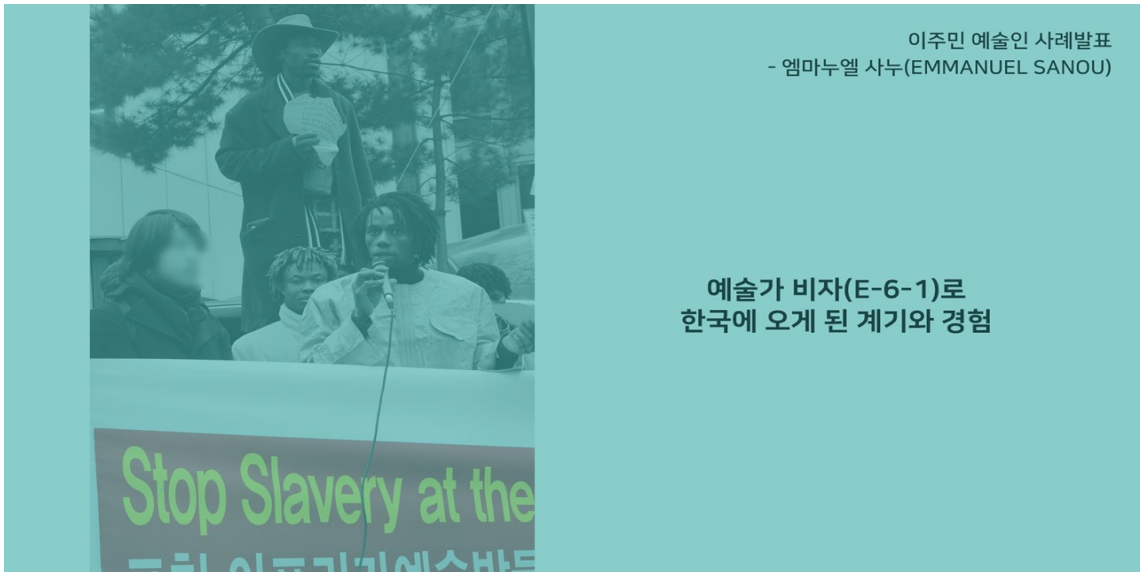
Quand j'avais E-6 visa, je ne me sentais pas protégé mais il me semblait que mon directeur avait toujours raison contre moi. Même si c'est difficile, je ne peux pas arrêter de travailler. Si j'arrête, il bloque mon visa. On a toujours peur de perdre notre visa. Si on peut avoir la chance d'appliquer notre visa nous-même pour les artistes résidant plus de presque 5 ans, cela va vraiment nous soulager. Est-ce que la Corée considère les artistes étrangers comme des membres qui ont un désir d'expression culturelle? Si je regarde les publicités à la télévision, je vois que la Corée veut montrer qu'ils sont ouverts au monde. Ne devrions-nous pas essayer de résoudre activement les problèmes de traitement et de séjour des artistes étrangers à l'avenir?



이주민 예술인 사례발표
- 엠마누엘 사누(EMMANUEL SANOU)



VIDEO
2017 작품 '데게베(Degesbe)' 소개 영상



이주민 예술인 사례발표
- 엠마누엘 사누(EMMANUEL SANOU)

예술가 비자(E-6-1)로
한국에 오게 된 계기와 경험

이주민 예술인 사례발표
- 엠마누엘 사누(EMMANUEL SANOU)



공연단체 '에스꼴라 알레그리아(Escola Alegria)'에서의 활동들

이주민 예술인 사례발표
- 엠마누엘 사누(EMMANUEL SANOU)



한국 청소년들과의 만남, 그리고 공유
"We need DIVERSITY for opening the door to the world."

이주민 예술인 사례발표
- 엠마누엘 사누(EMMANUEL SANOU)



"우리 모두는 항상 다른 존재가 필요하다."
다양한 몸의 문화들이 춤으로 만나고, 커뮤니티를 이루다

이주민 예술인 사례발표
- 엠마누엘 사누(EMMANUEL SANOU)



"저는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 모두 한국 사회에 깊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부 〈사례공유〉

이주민 예술가 사례 발표 2

일레인 베가 (미국 출신 배우, 미국 CAA 소속 예술가)

한국인과 외국인 인재들의 적절한 단합을 통해 K-예능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에 맞춰 공급할 때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온라인 공청회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일레인입니다. 오늘 참가를 통해 여러분과 제 경험 그리고 제 생각을 공유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한국의 업계와 문화 내에서 외국인을 위한 현재의 엔터테인먼트 제도를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저의 의견과 지식은 카메라 앞에서의 자리, 그리고 카메라 뒤에서의 자리, 두 가지 배경에서 나왔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한국 드라마의 배우이고 그리고, 카메라 뒤에서는 로스앤젤레스의 할리우드 최고 에이전시의 직원입니다.

오늘은 제 생각들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LA에 있던 회사를 떠나, 계약된 일자리나 심지어 면접도 없이 포부와 꿈만 가진 채 서울로 왔습니다. 제 취업 비자를 후원해줄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찾는 과정에서 여권 압수, 불법 계약 조항, 비자에 대한 불법 비용 청구 등 외국인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한국 회사나 개인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가장 심각한 사실은 제 실제 경력 개발에 관한 관심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단기적으로는 재정적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법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과거를 비판한다고 현재의 한국 제도가 개선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미래를 위한 변화를 만드는 것은 한국 엔터테인먼트 인재의 수준뿐만 아니라 이주와 관련된 기업과 소속의 한국인뿐만 아니라 그 시스템 안에서 거주하며 일하는 저 같은 외국인을 포함한 개인들의 수준을 보장 할 것입니다. 나열된 내용은 정보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관련 회사 및 비자의 책임을 재검토하는 데 초점을 맞춘 간단한 제안입니다. 목적은 상호 이익을 통해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의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전문가적 수준과 발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의 생각, 행동 및 정책 결정을 이끌어 주기 위해 어떤 사고방식이나 철학을 사용해야 할까요? 외국인으로서 가지는 환상을 한국의 후원회사의 현실과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생활방식 내 기대치와 균형을 이해함으로써 현실에 직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관계를 제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두 이해 당사자의 책임과 기대를 재정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급여 미지급 또는 강제 노동과 같은 흔한 범죄를 예방하도록 법적 또는 이주 상황에 대한 대처 및 지원 방법을 늘리는 것, 비독점적 프리랜서 작업이 반영되는 공정한 커미션 비율과 같은 대리인 계약의 세부 사항을 넣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시스템(노래, 연기, 모델링 등)을 외국인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않거나 외국인 생활의 현주소를 철저히 조사하지 않고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장과 발전이 있는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엔터테인먼트의 문화 및 사업 관행과 이러한 것들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대한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합니다. 적절한 조사와 연구가 없이는 어떤 정책이든 제정이 되어도 제작사, 후원회사 및 외국인재들 모두로부터 원하지 않는 반응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단계별로 진행하는 방법이 실제 환경, 협상 및 기회를 기반으로 하는 품질 향상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결론

아주 작은 차이라도 한국의 프로젝트들과 외국 인재들의 수준을 향상하고 이것들이 어우러져 제작된 콘텐츠가 한국의 모습을 세계에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러한 영광과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과정의 앞으로 올 단계들에서 긍정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며 모두 코로나로부터 안전하시기를 빕니다.

〈약력〉

일레인 베가

윌리엄 앤 메리 대학교에서 글로벌 연구 및 연극 예술을 전공했고 이후 헐리우드에서 영화제작과 편집 분야에서 일했다. 2014년부터는 미국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CAA(Creative Artists Agency)소속 예술가로 일하면서 K팝과 관련된 영화와 음악 사업 전반의 업무를 담당해오고 있다. 2019년 예술가 비자를 받아 현재 한국에서 배우와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Artist Talk〉
Case Presentation by Immigrant Artist ②

Elaine Vega (Actress from USA)

It's time to supply the worldwide demand of Korean entertainment with appropriate unity of local foreign talent.

Hello Arts Council Korea. Nice to meet you. To all those involved, thank you for taking the time and effort to make today's event possible. My name is Elaine. I'm honored to participate and share my experiences and thoughts with all of you.

My reason in being here is to improve the current entertainment systems for foreigners in a respectful and understanding way within Korea's workforce and culture. My insights come from two backgrounds of both in-front-of-the camera as an actress in Korean dramas and behind-the-camera as an employee from one of Hollywood's top agencies in Los Angeles.

In this presentation, I will breakdown my thoughts in three sections.

I left my company in LA and moved to Seoul without secured employment or even interviews, rather having arrived with only ambitions and a dream. The realities of finding an entertainment company to sponsor my work visa revealed the existence of scams from Korean companies or individuals to foreigners regarding passport abduction, illegal clauses in contracts, illegal charges for visas but most importantly the lack of interest for real career development. This results in short-term financial and long-term legal problems for everyone involved.

Criticizing the past does not improve the present within Korea's system, but creating change for the future will ensure quality for not only Korean entertainment's workforce but for also the individuals either as Koreans in respective companies and affiliations like immigration as well as foreigners like me who live and work within these systems. What you see listed are brief suggestions that focus on improving accessible information and re-looking at the responsibilities of the companies and visas so mutual interest ensures professional quality and development for both

Koreans and foreigners in entertainment.

So how is this possible? With what mindset or philosophy should we use to guide our thoughts, actions and policy making? I believe in confronting reality by understanding the balances of a foreigner's fantasy to the realities of Korean sponsoring companies and the expectations within Korean entertainment lifestyles.

Managing this relationship means re-defining responsibilities and expectations of both interested parties, which includes details in representation contracts like fair commission percentages to reflect the non-exclusive freelance work demands and resource availabilities for legal or immigration situations that may prevent common crimes like withheld payments or forced labor. We must all be aware that these changes will not happen without proper understanding of Korea's entertainment systems (whether it be singing, acting, modeling or more) to foreigners as well as thoroughly investigating the realities of a foreigner's lifestyle.

To create a positive environment of growth and development takes time. Breaking down these challenges requires a deeper probing into both the entertainment's cultural and business practices and how these influences should be realistically changed. Without proper investigation and learning, any policies that will be enacted may negatively create unwanted reactions from multiple sides of production companies, sponsoring companies and to the foreign talent themselves. Taking a step-by-step method ensures quality enhancement based on real situations, negotiations and opportunities.

Conclusion

I believe that in time even the smallest differences will improve the qualities of Korean projects and foreign talents so that together the content created will accurately reflect Korea to the world.

[KR] If given the honor and chance, I look forward to becoming a positive contribution in the next steps of this process. Thank you for your time. Stay safe from corona.

Entertainment E-6 Visa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일레인 베가 *ELAINE VEGA*

Mission Statement

It's time to supply the worldwide demand

of Korean entertainment

with appropriate unity

of local foreign talent.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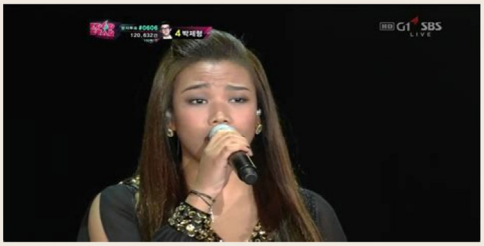


Table of Contents

1. Acquiring a Visa
2. Maintaining a Visa
3. Enhancing Support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cquiring a Visa

1. Providing information / appropriate assistance easily
2. Holding sponsoring companies accountable
3. Understanding the Immigration process
4. Qualifications for visa (in a way that better's Korean entertainment, too)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cquiring a Visa

Taking Time – Learning – Confronting Realities – Creating Change

Channels of Information:
- Website, Social Media
- Informational Packets

Accountability:
- Learning from Casting and Management
  - Balancing realities of expectations with production (film, tv, commercial)
- Learning from Government Office and Immigration
  - Directing Communication and Appropriate Accessibility

Competitive Eligibility:
- Understanding visa qualifications to adjust applicants so they better Korean entertainment
- Enhancing the rules for non-entertainment visas like F or Student
- Broadening scope of activities under E6 to allow diverse entertainment opportunities of growth

한국문화예술위원회





Maintaining a Visa

1. Expectations From Sponsoring Company
2. Fantasies vs Realities
3. Accountability
4. Immigration: Annual Visa Renewal
5. Legal: Understanding Contracts
6. Avoiding Scams

한국문화예술위원회

Maintaining a Visa

Taking Effort – Active Communication – Understanding Realities – Supporting Change

Understanding the Lifestyle
- Freelance Work While Sponsored
- Negotiating Deals By Self or From Company
- Financial Situations
- Realities of Entertainment Careers

Examining Legality
- Company Accountability re: Finances
- Contract's Commission Change to Accommodate Freelance Hustle
- Encountering Scams re: Visa, Passport, Communication, Opportunities
- Resource Availability

Contracts
- Commission
- Transfer / Terminate
- Sue / Counter-Sue
- Immigration or Lawyer
- Resource Availability

한국문화예술위원회

Maintaining a Visa

Taking Effort – Active Communication – Understanding Realities – Supporting Change

Understanding the Lifestyle
- Freelance Work While Sponsored
- Negotiating Deals By Self or From Company
- Financial Situations
- Realities of Entertainment Careers

Examining Legality
- Company Accountability re: Finances
- Contract's Commission Change to Accommodate Freelance Hustle
- Encountering Scams re: Visa, Passport, Communication, Opportunities
- Resource Availability

Contracts
- Commission
- Transfer / Terminate
- Sue / Counter-Sue
- Immigration or Lawyer
- Resource Availability

한국문화예술위원회

Enhancing Support

Conquering Challenges – Shaping Realities – Strengthening Korean Entertainment

Cultural Differences
- Legal boundaries must be understood before criticized
- Learning entertainment's production system will ensure safety of foreigner's inclusions
- Educate foreigner's expectations for Korean entertainment

Business Differences
- How to enhance professional synergy between sponsoring company to hired companies
- Learning how the visa updates will support the workflow and quality of projects

Step-By-Step Method
- Meetings with appropriate casting and sponsoring companies
- In-depth interviews with foreign talent (freelance under F Visa and artists under E Visa)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1 ARKO 온라인 공청회

예술인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온라인 공청회

3부
〈종합토론〉

〈외국인 예술가 비자 시스템의 제도 개선 방안 모색〉

사회 : 박경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토론자

김철효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소라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민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현장소통소위원회 위원)

섹알 마문 (문체부 문화다양성위원회 위원)

이취경 (법무부 체류관리과 사무관)

박경주

2021년 아르코 온라인 공청회 예술인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공청회 종합토론을 시작합니다.

우선 토론 참여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발제 맡아주셨던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김철효 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사전 프로그램에서 상영한 영화 〈파키〉의 섹알 마문 문체부 문화다양성위원회 위원님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토론회 참여하시는 토론자분들도 계신데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소라미 교수님 참여하십니다. 소라미 교수님은 공익법재단 공감 대표 변호사로 오랫동안 일하셨고요. 이주여성 문제와 이주민 예술가 비자 문제를 오랜 시간 중점적으로 다뤄주셨기 때문에 오늘 토론에서 많은 도움을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른 토론자 분들 소개드릴게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현장소통소위원회 신민준 위원님 참여하십니다. 신민준 위원님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서울시 청년정책네트워크 문화예술분과 운영진으로 활동하셨고요. 현재 예술대학생네트워크 활동가로도 활동하고 계셔서 유학생들의 비자 문제에 관련된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 체류관리과 이취경 사무관님이 참여하실 예정인데요. 오늘 원래는 현장에 오시기로 했는데 오늘 오전에 좀 부득이하게 좀 작은 이벤트가 있어서 못 오시게 됐고 저희가 긴급하게 줌으로 연결해서 토론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힘드실 텐데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종합토론이 외국인 예술가 비자 시스템의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것이니만큼 또 이취경 사무관님이 직접 참여해 주셔서 현장의 의견을 잘 청취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이후에도 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김철효 박사님의 발제문에 대한 토론자분들의 의견을 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소라미 교수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민 문화예술인 체류자격 제도와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문

소라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

우리나라의 외국인과 관련된 기본법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역사 · 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8조). 하지만 이주민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5%에 달하는 현시점에서도, 한국사회가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매우 회의적이다. 우리나라의 이주정책이 생산력 증대와 인구 증대의 측면만 강조해서 외국인 인재 유치와 결혼이주여성의 유치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그래서 다문화사회를 말하지만 실재로는 ‘다(多)’ 문화가 존재하지 않는 다문화사회라는 발제자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한국사회에 값싼 노동력으로, 재생산 인력으로 유입된 이주민들은 안정적인 체류자격이나 귀화를 위해서는 한국으로 ‘통합’될 것을 강하게 요구받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입법예로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살펴보면, 목적 조항에서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어, 이주민의 한국사회로의 ‘통합’이 강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이주민들은 출신 문화와 역사를 기억하고 향유하는 것에 대해서 지지받지 못하고 있다. 지지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한국민과 다른 출신 배경과 문화를 드러내는 순간 이주민은 배제와 차별을 감내해야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십 수 년 간 제자리걸음 중인 한국사회는 이주민 혐오세력과 차별 선동 세력을 정당한 여론으로 묵인해왔다. 그 결과 이주민이 고유의 문화와 역사를 드러내면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될 위험성이 매우 높아졌다. 진정하게 다(多)문화가 공존하는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 이주민 스스로 다양한 출신 배경과 문화를 안전하게 드러내고 한국사회와 상호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기 위해서는, 이주민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제도를 제대로 마련하는 것이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예술 이주민이 한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체류자격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체류하는 동안에는 경제활동이 가능해야할 것이다. 그런데 발제자의 지적에 따르면 문화예술(D-1) 체류자격을 가진 이주민의 활동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학술 또는 예술상의 활동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은 제한되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 차원에서 문화예술(D-1) 체류자격 이주민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거나 생계 지원을 하고 있지도 않다. 생계지원도 없고 경제활동도 보장되지 않아 기본적인 생활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D-1 체류자격 외국인이 어떻게 문화예술 활동을 한다는 것인지 상상하기란 쉽지 않다. 2020년 10월 현재 D-1 체류자격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이 33명에 불과하다는 것은 문화예술 체류자격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다.

따라서 우선은 문화예술(D-1) 체류자격 이주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국내 대학에서 문화예술 전공으로 유학 중인 이주민이 졸업 후 전공 관련 문화예술 활동을 한국에서 계속하고자 할 경우에는 체류자격을 유학(D-2)에서 문화예술(D-1)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이를 악용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사례가 우려된다면 체류자격변경 심사를 엄격히 하여 스크린 함으로써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다른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예술연예(E-6-1) 체류자격으로의 변경을 좀 더 용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발제자의 지적에 따르면 현재 다른 체류자격을 소지한 이주민이 예술연예(E-6-1)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수는 있지만 2019년 기준으로 변경이 허용된 건수는 총 14건에 불과하다. 전체 유학생 44,756명 가운데 예체능계 학생이 7,366명에 달하는데 그 중 졸업 이후 예술연예(E-6-1)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성공한 사례가 총 14건이라면 사실상 변경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서는 정부는 이주민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하여 현행과 같은 경직되고 소극적인 태도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와 정책을 개선해나가야 한다. 기술 중심의 이공계 전공자를 상대로 한 우수 인력 유치에 초점을 맞춘 외국인정책 기본계획부터 수정이 필요하다. 다양한 문화와 예술에 대한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한다면, 한국사회에 정착하여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는 이주민들에게 그들의 역사와 문화를 드러내고 향유하며 한국사회와 상호 교류해도 '괜찮다'고, '좋다'라는 메시지가 전달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술계열 유학생, 도구가 아닌 일원으로 받아들일 때

신민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현장소통소위원회 위원 / 예술대학생네트워크 활동가)

들어가며

발제문을 읽고 토론을 준비하며 과거 학생 시절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학생자치 기구 활동을 오래 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대학의 유학생 정책을 접하거나, 유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한국에서 유학생으로서 학교 · 교수 · 학생들로부터 겪는 차별들을 이야기하며 한숨을 털어놓곤 했습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는 전교생 13,000여 명 중 10%가 외국인 유학생이었으며, 그중 대다수 학생이 미술대학에 몰려 있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학과에도 한 학년의 70명의 학생 중, 5~6명 정도의 학생들이 외국인 유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졸업을 한 지 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지금, 이들이 계속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소식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외국인, 이주민 예술가들의 예술 활동은 형태가 전형적입니다. 주로 국공립 문화예술 시설에서만 그들의 작품이나 활동을 보거나, 다른 곳에서 이색적인 볼거리로 취급하는 형태 말입니다. 예술가들이 창조성을 가진 사람들임을 고려할 때, 이들의 모습이 전형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이겠지요. 분명 대학이라는 현장에서 유학생들은 예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일상을 같이 고민하는 동료 중 하나였는데, 졸업 이후의 예술현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결국, 유학생들이 대학에서의 겪는 차별이나 어려움도 문제지만 그들이 한국에서 예술가로서 계속 활동을 하고자 할 때 겪는 문제들은 더 심각한 차원의 문제가 됩니다. 현재의 비자 제도 상황과 예술지원 정책을 고려할 때, 이들이 한국에서 계속 활동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토론문에서 김철효 박사님의 발제문 중, 유학생과 관련된 내용을 중점으로 현재의 바자제도가 유학생 정책이나 대학 현황과 관련해 어떤 문제가 있으며, 유학생들이 졸업 이후 한국에서 예술가로 활동하려고 할 때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지에 대해 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배경과 현황, 문제점

현재 국내 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첫째 이유로는, 2010년대부터 이어진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인해 유학생을 통해 대학의 추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며, 둘

째 이유는, 국내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대학이 소멸 위기에 처해 있어 인원을 유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때문에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 유학생의 수는 약 30%로 큰 수치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대학의 재정 수입 추가 확대를 위해 외국인의 등록금을 매년 5~7%씩 지속해서 인상시켜왔고, 교육부는 국내 학생과 유학생의 등록금 정책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라고 언급함으로써, 유학생 문제를 사실상 방관해왔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김철효 박사님이 발제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부의 종합적인 외국인 정책에서는 외국의 인재 유치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 인재는 기업의 수요에 부응한 해외 전문 인력 혹은 산업 · 기술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2019년 기준으로 가장 많이 유학생을 유치하고 있는 계열은 사회계열이며, 예체능은 3위에 달하고, 이공계열은 그보다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요 정책이나 지원들이 이공계열에게 몰려 있어 형평성이 맞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예체능의 경우, 분야와 노동의 특성상 고용 노동을 전제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졸업 이후, 비자를 취득하는 것조차 어려워 최소한의 활동조차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표 1] 2019 대학 계열별 외국인 유학생 수와 비중[1)]

계열	유학생 수	전체 유학생 수 대비 비율	계열별 한국인 학생 수 대비 비율
사회계열	32,035	52.80%	5.04%
인문계열	10,851	17.88%	3.51%
예체능	**7,089**	**11.68%**	**3.00%**
공학계열	6,582	10.85%	1.10%
자연계열	3,187	5.25%	1.26%
교육계열	506	0.84%	0.37%
의약계열	422	0.70%	0.29%
계	60672	100%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내의 외국인 유학생은 자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타개책으로 적극적으로 유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졸업 이후 이들의 활동 분야나 반경은 한정함으로써 이들을 도구적으로 활용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예술계열 유학생들의 졸업 이후 예술 활동의 어려움

김철효 박사님의 발제문의 내용에서 유학생 졸업자 중, 문화예술과 관련된 비자를 취득하는 비율이 08%에 불과하다는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삶의 영위를 위한 조건으로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E-6 비자의 경우, 발급 과정에서 고용추천서를 필요로 하는데, 이 때문에 고용노동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가 다수인 순수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예술가들은 해당 비자 발급이 거의 불가한 수준입니다.

1) 출처 : 교육부 교육통계서비스

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교육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현행 E-6 비자제도가 예술대학 현황과 얼마나 간극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교육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예술계열 학과의 유학생 중, E-6-1 비자와 직접 관련된 학과의 유학생 수 비중이 26.97%, 디자인 등 산업에 포괄되어 다른 비자를 받을 수 있는 학과의 유학생 수 비중이 38.37%인 한편, 순수예술에 해당하는 학과의 유학생 수의 비중 종합도 34.66% 이르러 상당한 비중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행 비자 제도에서는 결국 예술계열 유학생 중 1/3은 자기 전공과 관련해 비자 신청조차 불가능해, 자기 의지와 관련 없이 한국을 떠나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에 남아 순수예술에 종사하고자 하는 유학생들을 위해 현행 비자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 2] 2019 대학 예술계열 분류별 외국인 유학생 수와 비중[2)]

예체능계열	계		100.00%	7,089	4,711
	디자인	계	38.37%	2,720	1,834
		디자인일반	6.57%	466	317
		산업디자인	4.57%	324	155
		시각디자인	6.43%	456	305
		패션디자인	7.39%	524	446
		기타디자인	13.40%	950	611
	응용예술	계	29.58%	2,097	1,548
		공예	**0.89%**	**63**	**41**
		사진 · 만화	**1.72%**	**122**	**53**
		영상 · 예술	26.97%	1,912	1,454
	무용 · 체육	계	9.83%	697	235
		무용	**1.89%**	**134**	**118**
		체육	**7.94%**	**563**	**117**
	미술 · 조형	계	6.45%	457	361
		순수미술	**1.59%**	**113**	**78**
		응용미술	**15.69%**	**300**	**268**
		조형	**0.62%**	**44**	**15**
	연극 · 영화	계	7.86%	557	364
		연극 · 영화	**7.86%**	**557**	**364**
	음악	계	7.91%	561	369
		음악학	**1.92%**	**136**	**93**
		국악	**0.14%**	**10**	**8**
		기악	**0.80%**	**57**	**39**
		성악	**1.10%**	**78**	**47**
		작곡	**0.23%**	**16**	**5**
		기타음악	**3.72%**	**264**	**177**

2) 출처 : 교육부 교육통계서비스

다음으로는 체류 자격의 해결 이후, 예술 활동의 지속의 어려움을 말하고자 합니다. 순수예술의 경우, 대다수의 예술 장르가 수익성을 담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문화예술이 가지는 다양한 사회적 효과 - 개인의 치유적 효과, 공동체성의 증진, 다양성 긍정의 인식 확산, 부가적인 경제 효과 - 등을 인정하여 정책적으로 지원금을 통해 예술 활동을 보조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진입 시기에 있는 예술가들에게 창작 지원금 보조는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국내 문화예술 지원 사업은 자격요건을 한국 국적을 보유한 자로 한정하고 있어, 유학생들이 국내 예술계에 진입 및 활동할 수 있는 경로가 막혀 있습니다. 이는 유학생들이 한국에 남아 예술 활동을 하고자 함에도 지속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가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체류 자격을 얻은 이후에도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보조 및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결론, 도구가 아닌 일원으로 받아들일 때

변화할 미래 속에서 국내외의 정세와 사회 환경을 고려할 때, 이주민 및 다양성과 관련된 행정과 제도, 인식의 변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이를 증명하듯 한국에 체류하거나 귀화하는 외국인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이미 우리는 대중매체, 문화예술, 축제 등 일상 속에서 변화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2018년 문체부가 발표한 정책 로드맵인 「문화비전203 : 사람이 있는 문화」의 주요 의제에는 “문화다양성 보호와 확산”이 포함된 이유도 이 때문일 것입니다. 문화다양성의 기본 원칙들은 인류의 비극이었던 2차 세계 대전 이후, 욕망과 야만, 착취의 시절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선언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도 현재의 외국인,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 중 많은 부분이 아직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이들을 도구적으로 활용하고 통제하려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은가 생각해봅니다. 문화예술 영역에서는 대학의 수입 확대를 위해 다양한 유학생을 유치하면서도, 예술 분야 중, 수익가치가 높은 분야에만 비자를 발급하는 것이 그러한 예일 것입니다.

흔히 순수예술은 기초예술로서 다양한 문화 활동의 기초적 자양분이 된다고 말하곤 합니다. 이와 함께 대중매체 외에도 일상 속의 예술에서 외국인, 이주민들과 만나고 소통하는 것은 다양성과 포용의 문화를 증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문화산업이나 관광산업 분야 외에 순수예술 분야에서도 이주민 예술가들의 활동에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한국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자 하는 유학생 및 이주민 예술가들을 위해 비자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재청합니다.

한국 사회가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주요한 발걸음 중 하나로서 이러한 변화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3부 〈종합토론〉

이주민 예술가들의 예술적 가치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섹알 마문 (독립영화 감독, 문체부 문화다양성위원회 위원)

현재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에서 5%가 이주민들이 차지하고 있다. 숫자로 보면 약 250만 명 정도이다. 결혼이민자 ,영주권자들 제외한 많은 이주민들은 비자 문제로 인해 다양한 활동의 제한을 받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예술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정부 초청/비영리문화예술단체의 초청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현재 한국에서 예술 비자(E6)를 받은 숫자가 3215명 정도 된다. [출입국 외국인청 정책본부 발표 _2020/02/29]

그 외 D-1, E6-1비자를 받는 이주민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 수는 매우 낮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여러가지 정부 정책이 펼쳐지고 있다. 문화다양성에서는 예술이 많은 부분이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문화다양성 관련 정책과 법무부의 이주민에 대한 비자 정책은 달라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많은 예술단체들은 이주민들의 문화 예술활동에 대한 정책을 많이 만들고 그 기회도 많아 줘야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예술 활동 비자를 받는 것 쉽지만 않다.

실제로 한국에 오기 전에 예술 활동을 했던 예술가 혹은 한국에 와서 다양한 예술활동 하는 이주민들이 많지만 한국에서 예술가로서 예술활동 비자 E6나 E6-1 비자를 바꿔서 활동을 하기는 많은 제약이 있어 실제로 지속적으로 예술 활동을 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면 E9 비자이나 취업 비자를 가지고 있는 이주민들은 한국에서 다른 비자로 바꾸기가 제한되어 있다. 본 토론자는 9년째 '아시아미디어 컬쳐팩토리(AMC Factory)'라는 비영리문화예술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다양한 이주민의 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그 활동 경험 중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단체는 2012년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 예술가와 한국 선주민 예술가들을 모아서 '지구인뮤직밴드'란 이름으로 다국적 음악밴드를 만들었지만, 채2년도 활동을 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바로 비자 문제였다. 그 밴드에 참여 했던 이주민들은 유학생, 학원강사, 연구원, 노동자, 난민 등 다양한 비자를 받은 사람들이였다. 하지만 결국 비자 기간 끝나고 연장이 안되는 멤버들이 많아 대부분 한국을 떠나게 되었다.

최근에도 우리와 몇 년간 예술 활동했던 이주노동자 출신 이주민 활동가들이 본격적으로 예술가로써의 길을 가기 위해, 한국 대학에서 예술을 전공하고자 한국어능력시험 통과 등 많은 노력을 하고 대학에 접수해서 면접까지 갔지만, E9비자에서 바로 학생비자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학 입학이 좌절되어 한국을 떠났다.

지금 소개 했던 사례가 두 개뿐이지만, 우리 단체에서 활동 하다가 비자 문제 때문에 한국을 떠나가는 이주민 예술가들은 사례는 더 많다. 한국에 다른 이주민 관련 예술단체를 봐도 이러한 상황들이 많이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본 토론자는 이 토론문을 쓰며 이주민 예술가들의 예술의 가치는 어떻게 계산 할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을 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실시간 라이브를 보고 계산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제안으로 이 토론문을 마치겠다.

예술활동 비자의 발급 기준을 엔터테인먼트 회사, 정부 초청뿐 아니라 현재 비영리 문화예술 단체 초청으로 비자를 주는 것에서 더 폭을 넓히고 그 장벽을 낮추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소속없이 예술활동 하는 이주민 예술가들의 활동을 입증을 받고 예술 비자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싶다. 일례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으로 등록하고 심사받는 정도의 수준으로도 예술가로써 충분히 인정해야 한다.

예술은 꼭 상업적으로 돈을 벌어야만 예술이 아니고, 정부가 초청 할 수 있을 만큼 명성이 높아야만 예술가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술의 본질이 자유로운 것 만큼 예술활동을 인정하는 기준도 좀 더 유연해야 할 것이다.

3부 〈종합토론〉

외국인 문화예술인에 대한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정책의 방향

이취경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사무관)

○ 외국인정책과 체류자격

- 제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18.~'22.)은 '외국인정책'은 "국경 및 출입국관리, 국적부여 정책과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민정책(Immigration Policy)"을 의미하며, "대한민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외국인과 그 자녀 등에 대해 영구적 또는 일시적 사회구성원 자격을 부여하거나, 국내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제반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다루는 정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이 중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은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정책으로 구체화되며, 출입국관리법 제10조부터 제10조의3 및 하위법령에 따라 총 36개로 구성된 체류자격별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체류자격은 크게 단기체류자격·장기체류자격·영주자격으로 구분되며, 여기서 장기체류자격은 다시 외국인의 주된 국내 체류목적에 따라 △외교·공무, △학술·연수·문화 등 교류, △취업, △사업·투자, △가족방문, △결혼 등으로 나뉩니다.

○ 다양한 체류자격과 문화예술

- 이러한 체류자격별 분류체계와 심사기준은 외교관계 확대, 대외무역 증가, 국가경쟁력 강화 등 우리나라의 발전과 함께 점진적으로 변모해 왔습니다.
- 아주 초기에는 외교·공무, 무역활동, 우수인재 등을 위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었으나, 체류외국인 규모가 확대되며 동포, 유학, 일반직·단순노무직 취업, 사업·투자, 결혼 및 가족결합, 난민 등 다양한 체류목적을 포괄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해왔습니다.
- 문화예술 관련 체류자격 또한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외국인 대상 유흥시설의 공연수요를 시작으로 했으나, 그간 우리나라 문화예술계가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현재는 전통문화, 순수예술, 대중문화, 방송연예, 콘텐츠산업 등 다양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한편 국내에서 문화예술 관련 학교를 졸업한 유학생이나, 취업·가족동반 등 다른 목적으로 입국했다가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체류외국인도 늘어나는 등, 문화예술 분야로 진입하고자 하는 경로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 현재의 문화예술 관련 체류제도를 시대변화에 따른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 문화예술 관련 체류자격 현황

- 현재 문화예술과 관련한 장기체류자격으로는 '문화예술(D-1)', '예술흥행(E-6)'이 있으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은 각 체류자격의 취지에 따라 요건과 활동범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①문화예술(D-1)은 민간영역에서의 문화예술 교류와, 우리나라 전통문화에 대한 계승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비영리 체류자격입니다.
- ②예술흥행(E-6)은 국내 문화·예술·체육 등 관련 산업의 발전과 우수한 외국인재 유치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영리 체류자격으로,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을 근거로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 - 해당부분 발췌〉

체류자격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문화예술(D-1)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문화 또는 예술 관련 활동을 하려는 사람(대한민국의 전통문화 또는 예술에 대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하거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예술흥행(E-6)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 · 패션 모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려는 사람

○ 문화예술 관련 체류제도의 개선 방향

- 앞서 여러 참석자 분들께서 말씀해주신 바를 종합해보자면, 앞으로의 문화예술 체류제도는 순수예술을 비롯한 문화예술의 다양한 분야를 포섭하고, 소속사 없이 독자적인 지위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도 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해외에서 새롭게 입국하는 경우 외에도, 예체능 관련 학과 유학생이나 문화예술 분야로 직종전환을 하고자 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로로 문화예술 분야에 진입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정비할 필요도 있습니다.
- 한편으로는 문화예술 분야의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고용관계·소득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어려움, 언어장벽과 국내 제도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인한 피해, 기타 인권침해 사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 법무부에서는 오늘 제언해주신 내용들과 함께, 문화예술 분야 체류외국인의 의견청취, 해외 문화예술 체류제도 비교분석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예술 분야 체류제도에 대한 현황점검과 제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해주신 주최측 및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1 ARKO 온라인 공청회 예술인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온라인 공청회

3부 〈종합토론〉

현장토론

박경주

저희가 보내드린 발제문과 토론문을 꼼꼼하게 잘 읽어보시고, 이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신다고 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토론을 더 이어 나가기 전에, 지금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공청회가 라이브로 나가고 있는데, 다양한 댓글들이 달리고 있어요. 온라인상에서 토론이 이어져서, 토론하시는 분들끼리 서로 이메일을 교환해서 토론을 더 이어 나가시는 데까지 토론이 전척 됐습니다. 그분들이 다 예술가, 이주민 예술가분들이세요. 매우 감격적이네요.

몇 가지 소개를 해 드릴게요.

먼저 유튜브의 한국어 채널에 세리라는 분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외국인이 급해서이기 전에 우리 경제가 급해서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인 거라는 사실입니다. 극단적 표현일지 모르지만 우리 경제의 은인이기도 한 것이 외국인 노동자분들이고 이주민분들이십니다. 그들이 우리 땅에 사는 한그들의 인권을 보호해 주고 우리 국민과 똑같이 대해 주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좋은 글 남기셨고요.

또 어떤 분은 '백신 비자를 꼭 해 달라'고 하셨고. 그 밖에 또 무용가에 대한 논의를 부탁하신 분도 계세요. '무용가는 어떻게 자신의 활동이나 이런 걸 증명해서, 안무가나 무용가라는 예술 관련 직업에 대해 증명해서 E6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 궁금하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아티스트 비자에 대한 최저 임금 기준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댓글도 있고요. 또 최근에 올해부터는 예술인 고용보험이 실시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주민 예술가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련 기관, 예술인복지재단 등에서 같이 고민을 해 줘야 될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또 존 미셸이라는 분은 '정부가 이미 E6 비자 소지자를 예술인으로 보고 있다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을 받아서 예술인복지법에 의해서 보호받아야 되지 않을까요?'라고 하는데 이 공청회 준비하면서 저도 이 자료를 봤는데 안타깝게도 예술인복지재단에는 E6 비자 홀더는 예술활동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현장소위나 관련된 위원님분들과 의논해서 추후에 공청회 결과 자료집을 가지고 예술인복지재단 담당자님도 만날 계획이 있습니다. E6 비자 홀더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전혀 대책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술가 비자를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한국인 예술가들처럼 동등하게 대해 줘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이후에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 예술인들이 스스로 비자를 신청하지 않고 왜 사장이나 다른 사람이 신청하게 하는지 이

해가 안 된다'는 댓글이 있고요. 한국의 한 대학에서 미술을 가르치고 있으신 어떤 분은 'E6 비자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외국인 아티스트나 펀딩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본인이 네덜란드에서 오랫동안 사셨는데 그때는 그런 차별이 없었다고 하시거든요. '한국에서도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예술가들에게도 펀딩을 신청하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외국 예술 학생 비자에 관해서도 킬비라는 분이 댓글 남겨 주셨는데 '지금 굉장히 생활이 어려워서 생활 때문에 일을 하고 싶은데 그것도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고요. 본인이 지금 작가로서 연구하고 있는 분야와 엔터테인먼트 분야가 특히 미술은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비자 문제나 체류 문제에서 여러 부분이 힘들다고 하십니다.

세금 문제 등도 신경을 써 달라는 댓글이 있습니다.

이어서 집중 토론했으면 하는 소재를 사무관님과 함께 공청회에서 의견을 모을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이취경 사무관님께서 저희들이 드렸던 자료를 보시고 문화예술이나 순수예술, E6 비자와 관련된 분들이 이제 소속사 없이 독자적인 지위에서 예술인 비자를 신청하고 독자적으로 예술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형태를 발전시키면 좋겠다고 하셨는데요. 여기 제 옆에 앉아계신 분들이 전문가시니까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안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예체능 관련 학과에 유학생이나 문화예술 분야 직종 전환을 원하는 분들의 경우에 다양한 경로로 문화예술 분야에 진입하고 있는데, 진입 장벽을 낮추고 이분들이 불필요한 이동 없이 한국에서 문화예술 관련 비자를 받고 활동하려면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하는 게 방향성 면에서 좋을지 의견을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두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분이 의견을 주실지요? 발제하신 김철효 박사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철효

박경주 선생님께서 제안하신 문제에 대해서 제 생각을 이야기하기 전에 전체적인 토론에 대한 제 감상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문화예술 분야에서 사실은 한국에서 이주민뿐만 아니라 내국인들도 이미 열악한 환경에 있고 그렇다는 것들은 여러 경로로 많이 들었잖아요. 봉준호 감독이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영화를 찍었다는 게 뉴스가 되는 게, 근로기준법 준수하라는 건 40여 년 전에 전태일 열사가 얘기했던 건데, 그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한국 문화예술계의 현실이라는 건데요. 그런데 거기에 기반해서 케이컬쳐, 케이팝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홍보만 하는 그런 태도가 지금 정말 바른 건지.

또 하나는 이주민 문화예술인들의 대한 평가, 가치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우리가 막 홍보하는 케이팝, 케이컬쳐가가 이주민들 또는 외국 문화와의 교류 없이 만들어졌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BTS건 누구건 그게 한국에서, 한국 사회 안에 전통적으로 있던 그런 음악이 아니라 많은 다양한 문화와 만나면서 발전을 하고 더 창의적이게 된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 와 있는 많은 이주민 문화예술인들과 적극적으로 교류를 할 수

있게 하고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앞으로 케이컬쳐가 훨씬 더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고요.

산업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TV에서 요즘 이주민 연예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저도 그렇고 저희 아이들도 아주 즐겁게 그런 방송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게 재밌는 이유가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기도 하고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는 한국 사람들이 불편해서 말 못 했던 것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건 우리 사회를 풍부하게 만들고 사회를 더 발전시키는 데 엄청난 기여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일레인 선생님 발표하는 거 듣고 여권이 압류되기도 하고 임금 체불 등 이야기 듣고 많이 놀랐거든요. TV에 멀쩡하게 나오시는 연예인분들이 사실은 지금도 그런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상황을 듣고 이게 무슨 90년대 산업연수생 시절에 나오던 이야기가 지금도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요. 엠마누엘 사누 선생님이 전에 TV에 임금 착취당했던 문제들이 일정 정도 해결돼서 그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을 본 게 기억이 나는데요. 포천아프리카박물관 이사장이 당시 여당의 국회의원이었어요. 그 국회의원이 사과를 하고, 이런 쇼 같은 걸 하는데 뒤에 계신 아프리카 예술인들의 모습을 저는 기억이 나는 것이요. 제 생각에는 아마 그때 가지고 계신 제일 예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나오셨던 거 같아요. 자존심 그리고 여태까지 느꼈던 문화예술인이 차별당했던 모멸감, 모욕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상받을 것인가를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정말 당당한 모습을 보이려고 애쓰는 느낌도 들었고요. 또 당시에 기억나는 장면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이 사누 씨를 포함해서 끌어안고 우리 잘 지내자 이런 식의 포즈를 취하는데 막 이렇게 싫어, 그러지 마시라, 이런 자존심,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주 안타깝고 마음이 안 좋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현상들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다는 게 너무 답답합니다.

또 하나 새롭게 발견된 문제가 유학생들은 앞으로 갈 길이 없다는 건데요. 근데 그거는 유학생이나 E6 비자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이민 정책 전체가 한국에 와 있는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에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지 마라, 일정 정도 시간 동안 일을 하든 돈을 벌든 하고 돌아가라라는 걸 전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이주민이 한국 사회에서 살면서 급한 거죠. 뭔가 빨리 해야 되고 언제 쫓겨날지 모르고 항상 이 상황에서 비전을 갖지 못하고 살면 노동자 같은 경우는 생산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문화예술인 같은 경우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겠죠. 맨날 비자 연장 이런 거를 걱정하면서 살면 문화예술 창작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깊은 성찰과 고민 같은 것들이 이제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학생 중에서 E6-1 비자를 받은 분이 14명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 그것도 어려운데 그렇다고 E6 비자 받으세요라고 추천하기도 어려운 게 너무나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착취를 당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주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E6라는 비자를 매개로 사용자가 피고용인을 구속하고 종속시키는 구조가 있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비자 취소시킬 거야'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제도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내가 문화예술인이란 걸 증명하는 방법은 에이전시 사장이 문화예술인이라고 이야기해 줘야만 증명이 되는 그런 구조. 그래야만 내가 여기서 체류를 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에서 종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모든 이주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경험입니다.

이주 노동자, 이주 문화예술인들도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 비전을 가지고 존중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직업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금방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토론으로부터 그런 것들을 시작을 해서 E6 비자가 어떻게 개선될 건지 또는 아까 제가 발제 때 언급한 것 중에 하나가 소속사 없이 독자적인 어떤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요. 지금 임시방편일 수는 있겠지만 특정 활동이라는 E7 비자가 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제도가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문화예술인을 포함시킬 수 있을까도 임시적인 대안으로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들의 능력과 재능이 인정되면 어디서라도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는 식으로 제도가 전체적으로 바뀌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경주 선생님께서 해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특정 활동 비자, E7 비자 같은 것들을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활용할 수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을 것도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문화예술인에 대한 정책, 이주민 문화예술인,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는 정책을 좀 더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게 법무부가 노력한다고 다 되는 건 당연히 아닐 것 같아요. 비자를 주기만 하면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법무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비자를 주고 체류 자격을 주고 이런 것들이지만 이주민들의 근로 조건은 노동부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되고 문화체육관광부도 그런 감독의 권한이 필요하고, 이런 여러 부처들이 조율하면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안들을 앞으로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주

감사합니다. 정해진 일정에 잘 맞춰서 진행해도 막상 토론하려 하면 시간이 항상 모자라더라고요.

그러면 이 분야를 굉장히 오랫동안 다뤄오셔서 어렵게 이 자리에 모셨는데, 소라미 교수님께서도 방향성이나 당장 우리가 그럼 무엇부터 해야 될지 제안을 하실 수 있을 거 같아요. 부탁드립니다.

소라미

법무부 이취경 사무관님께서 다 검토해 보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셔서 굉장히 반가웠는데 이게 얼마나 또 반영이 될 수 있을지 쉬운 일은 아닐 것 같기는 한데요.

개선 방안 중에 첫 번째로 말씀해 주셨던 소속사 없이 독자적인 지위 또는 프리랜서로서 예술인이 비자를 발급받아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사실 이 비자 문제나 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변경하는 것은 법까지 개정할 필요는 없는 사안이거든요. 법까지 개정하기에는 정말 너무 어려운, 국회 상임위원회, 본회의까지 통과돼야 되는 험난한 산이 있지만, 이 내용은 법무부 내부에서 체류관리지침이나 매뉴얼을 바꿔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바꿔야 되는 거에 비해서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체류 자격별로 그 체류 자격을 얻기 위해서 또는 변경하기 위해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 서류 요건이나 심사 요건을 완화하는 것으로도 가능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려면 지금 그만큼의 공감대나 목소리를 내는 분들도 필요한 거고, 그만큼 필요성에 대해서 법무부 내에서나 시민사회 내에서의 그런

공감대가 있어야 그 동력이 생길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같은 자리가 굉장히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고민이 계속 부처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인도 하고 촉구도 하고 이런 걸 밖에서도 하고 또 법무부 안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관련된 지침이나 매뉴얼을 바꿔서 심사를 완화하는 걸 검토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행착오도 겪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실현해 볼 수 있는 문화예술인 이주민 정책을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섹알 마문 감독님께서 해 주셨던 말씀도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은 거꾸로 돼 있다. 비자는 이주민이 어떠한 능력을 펼칠 수 있는지 자격을 봐야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비자 문제로 모든 게 환원되는 블랙홀 같은 것 같습니다.

예술인으로서 다양한 곳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활동이나 능력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무엇이어야 될까요? 수상 경력일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원, 어느 NGO일 수도 있고 정부 차원의 문화 정책 지원일 수도 있는데 그런 지원 대상이 된다든지, 예를 들면 인정받은 공인된 예술인이나 교수님들로부터 추천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술인으로서 활동할 가능성과 역량이 증빙이 된다고 하면 일정 기간 동안은 활동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고요.

체류 자격 변경하는 것도, 유학생이 계속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거는 굉장히 서로 윈윈할 수 있을 거 같긴 한데요. D2 비자에서 E6-1이나 김철효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E7이나, 이렇게 전환하는 부분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좀 더 다양한 방식을 법무부 내에서 연구해 주셔도 좋을 거 같고요.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해서 방안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경주

가장 큰 문제는 예술가라는 직업 자체가 사실은 누군가의 고용 관계에 의한 직업이 아니라는 게 저는 핵심인 거 같아요. 많은 내국인 예술가도 사실은 프리랜서 예술가이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주민 예술가들을 대할 때 과연 그들에게 항상 고용계약서를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꼭 고민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예술활동증명 같은 경우 활동했던 내용들을 등록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전문 예술가들은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대단한 미술관과의 계약서라든가 뭐 큰 엔터테인먼트회사와의 계약서 없이도 만약에 예술활동증명과 비슷한 정도의 증명이 된다면 예술가로 인정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얘기를 못 하신 분들이 계셔서요. 시간 관계상 신민준 위원님과 섹알 마문 감독님 마지막으로 이취경 사무관님께 1분 30초씩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섹알 마문

일단 저는 법무부가 마음만 먹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소라미 교수님도 얘기를 해 줬지만 법을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서 어떻게 완화시킬 것이냐죠.

아까 발제문에서도 4년 동안 한국에서 예술을 공부하고 그 학생이 예술 비자를 못 받으면 사실상 누가

예술 비자를 받을 건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4년 동안 공부를 해서 한국에서 대학 졸업을 하면 예술 비자로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른 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국내에서 예술 축제나 자기 작품이나 다양한 예술 활동을 하면 그걸로 인해 예술 비자를 받고 싶으면 그 자료로 인해 예술 비자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조금 안타까운 얘기를 하면요. 아마 우리 사회 모든 사람이 많이 알고 계실 거 같은데 네팔 출신 민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민우가 한국에서 미등록 비자를 갖고 미등록으로 살아갔지만, 13년간 예술가로서, 그냥 예술가가 아니라 한국에서 정부 기관의 행사에도 많이 가서 음악 활동을 하고 한국에서 음악을 내던 예술가였는데 결국에는 비자가 없다고 어느 순간 쫓아 보내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타까운 얘기지만 법무부는 어떤건 해요. 하긴 하는데, 결국 시간이 늦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주 노동자 문제도 그렇고 작년부터 시민단체와 많은 단체가 코로나 때문에 이주 노동자들이 자기 나라에 가도 오지 못하고, 가면 재고용되는 사람들도 못 들어온다고 문제제기를 했는데, 법무부에 1년짜리 비자를 주라고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비자를 1년 뒤에 줬는데, 그걸로 인해 피해를 받는 사람도 아주 많고 자기 조국에 가서 못 들어오는 노동자들도 많습니다. 아마 법무부도 이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지금이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면 전문가들이 오늘 토론 자리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루빨리 '아. 이런 거는 우리가 놓치고 있구나' 그런 거를 생각해서 해결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이주민 예술가들이 그냥 자기 꿈을 접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박경주

감사합니다. 신민준 위원님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민준

저는 가치적인 부분과 실질적인 부분 두 개로 나눠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가치적인 부분은 사례로 얘기를 하면요. 저도 최근에 들었는데 KBS 음악회가 코로나 상황으로 전면 비대면을 하는데 티켓을 안 팔아도 수익이 훨씬 더 많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상황은 무엇을 말해 준다고 생각하냐면, 코로나 시대에 예술이 가진 회복력 그리고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모든 인재 정책이나 여러 가지 측면들이 다 경제적인 요소들에만 맞춰져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코로나가 전환을 요구하는 만큼 사회적 가치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문화예술이 아주 전문적인 능력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활동들을 한국에서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들이 필요한 거 같고요.

실질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하자면 유학생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금 예술인활동증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청년들이 문화예술계 진입하기가 어렵고, 증명하는 것들이 너무 어렵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서 한시적으로 처음 증명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증명 조건을 완화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최

소 한국에서 2년, 많게는 4년 이상 동안 예술을 전공한 거잖아요. 그들을 대상으로 비자를 전환을 할 때 증명 조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지 않나, 그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 창구나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경주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공청회를 준비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1분 1초가 굉장히 아까운 심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무관님 말씀 듣기 전에 지금 유튜브에 이런 의견이 올라왔어요. '이주 예술인 정책은 인권을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합니다. 체류 자격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타 기관, 부처 또 법무부나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기관들의 협력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을 거 같은데요. 공청회 이후의 제도 개선은 어떻게 해야 추진될 수 있을까요'라는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을 던져 주셔서, 이 문제는 저 또한 이 공청회 이후에 저희가 제도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관님께 질문을 한 번 드려 보고 싶고요.

하시고 싶은 말씀과 연결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취경

저한테도 끝에 발언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비자 정책의 기준들이 이유 없이 만들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왜 만들어졌고 왜 지금 시대에는 부합하지 않는 모양새를 가지게 됐는지를 같이 이해하고 개선을 찾아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거는 이 자리만으로 해결되는 건 아닌 거 같아서요. 이번 공청회를 저희가 문화예술인들의 비자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가지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인지하는 계기로 삼고, 저희가 박경주 위원님을 통해서 별도의 자리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주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꼭 듣고 싶었던 마무리 멘트였습니다. 감사드리고요.

10분 정도는 더 있을 것 같아서 아까 발언하셨던 예술가분들이 아직 안 가고 계속 남아서 방청하고 계시는데요. 이분들 중에서 이 공청회 자리가 처음으로 이주민 예술가들의 비자 문제나 처우에 대해서 고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실 거 같아요.

어떤 분이 용감하게 말씀을 해 주실지 저는 지금 한 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엠마누엘 사누 님. 앞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동렬 통역사님도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엠마누엘 사누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공청회에 참여할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어쨌든 미래에는 큰 변화가 있을 것 같네요. 지금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

가 오가고 그 속에서 많은 점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어쨌든 미래에는 제가 과거에 E6 비자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처럼 느꼈던 그 순간들을 다른 분들이 안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미래의 변화를 꿈꾸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주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저희가 발제 부탁드렸을 때 2011년에 겪었던 그 어려웠던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누구나 트라우마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오늘 또 해야 되냐고 저희한테 반문해 주셨어요. 다시는 10년 전의 어려웠던 피해 사례를 대중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법무부나 문체부나 관련 기관에 계신 분들이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레인 씨.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레인 베가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쉬운 방법으로는 우리의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E6 비자도 얻기 쉬워질 것이고요. 그리고 그 비자와 관련된 규정과 관리들이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캐스팅이나 이런 것들이 계약서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법적인 권리들을 찾을 때 무엇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지, 우리가 알아야 하며 그리고 이런 모든 회사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을, 소셜미디어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도 모두 다 자세히 관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경주

일레인 씨 감사합니다. 고백을 하자면 제가 이 공청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E6 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을 제가 운영하는 극단 페이스북을 통해서 섭외했고, 일레인 씨를 작년 이맘 때 봄에 섭외했습니다. 그때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레인 씨가 저에게 제안한 것은 오히려 이주민 예술가들이 코로나 시기에도 굉장히 똑같이 어렵게 지내고 있다는 것을 온라인을 통해서 한국분들에게 전달하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이 감동을 받았고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하면서 저희가 대중들과 이주민 예술인이 통할 수 있는 제안을 한 것도 일레인 씨였습니다. 그런 좋은 제안을 주신 덕분에 오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약속했던 시간이 다 됐습니다. 〈2021년 예술인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온라인 공청회〉를 이로써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온라인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이취경 사무관님께도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술인 비자 문제를 중심으로 이주민 예술인의 한국 내 안전한 문화예술 활동 장려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준비했던 자리였고요. 이 자리에서 논의됐던 내용이 이후에 이주민 예술가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본 공청회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현장소통소위원회가 주관, 국회 법사위 김남국 의원실이 후원하고 피노이 서울이 협찬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공청회를 시청해 주신 시청자분들과 댓글로 많은 의견을 주신 분들에게도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고요. 지금까지 공청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